

# 일제하 서울 남촌 상가의 형성과 변천

- 本町을 중심으로 -

전 우 용\*

## 1. 머리말

일제 식민지 시기 혼마치(本町)는 서울에 ‘근대성’이 유입되는 통로이자 서울 도시화의 상징이었다. 조선은행, 경성부청 — 1930년대부터는 미쓰코시(三越) 백화점과 조선저축은행 —, 경성우편국으로 둘러싸인 ‘센긴마에(鮮銀前) 광장’은 일본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 센긴마에 광장에서 남산으로 향하는 길, 아니 거꾸로 남산에서 센긴마에 광장으로 통하는 길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자취를 담은 길이었다. 그 길을 일본인들은 혼마치토오(本町通)라 불렀다. 사실 일본인들의 서울 이주사(移住史)는 혼마치의 공간적 확대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서울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던 본정통은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았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동(明洞)은 서울에서 세계와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 엄밀히 따지자면 본정은 해방 이후 충무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고 명동은 메이지마치(明治町)의 후신이라 해야 할 것이지만, 옛 본정 1, 2정목(丁目)과 명치정 일대, 그리고 남대문로 일부까지가 명동으로 통칭되면서 ‘싸롱’ 시대가 지속되었다. 서울의 일류 신사, 숙녀라면 명동의 의상실이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어야 했고, 명동 싸롱화를 신어야 했으며, 명동의 이발관이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어야 했다. 명동의 다

---

\*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방에 드나들지 않으면 문화인 행세를 할 수 없었고, 종로 이북의 요정(料亭)이 아닐 바에야 명동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서울 문화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감에 따라 명동 일대의 영화는 이미 옛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명동과 충무로는 세월의 간격을 넘는 역사적 관성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명동과 충무로 1·2가 길 양측에는 무수한 의류상과 다방, 음식점, 안경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명동 뒷길, 을지로쪽으로는 경취시장(京取市場)의 후예라 할 증권사, 종금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충무로 2가 이동(以東)에는 영화사, 활판인쇄소, 기획사무실, 사진관, 카메라점 등 ‘필름’과 관련된 업체들이 가득 들어서 ‘충무로 영화골목’, 또는 ‘충무로 인쇄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충무로 5가에는 건축자재, 건축설계사무실, 인테리어 회사 등 ‘집’과 관련된 업체가 특히 많다. 충무로 4가 — 실제로는 세운상가 블록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 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꽃상가가 자리잡고 있다. 충무로 일대의 이러한 상점 분포를 ‘경제적 효율성’만을 잣대로 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sup> 여기에는 경제공간으로서의 ‘위치적’ 성격 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갖는 ‘장소적’ 성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명동과 충무로는 해방과 동시에 거주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지역이고, 또 한국전쟁 당시 가장 처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이 일대의 장소성(場所性)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식민지하 서울에서 형성된 ‘근대성’이 심각한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도 지속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체를 확인하는 일은 오늘날의 도시 서울을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근대성’이 현대 서울 공간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제하 본정 상가의 형성과정과 그 구성상의 변동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해

---

1) 충무로 일대의 상점 분포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제공 joins.com의 지역별 업체 db를 참조.

우선 본정 특유의 ‘장소성’을 만들어낸 힘을 추적할 것이다. 본정을 서울의 경제적·문화적 중심으로 부각시킨 여러 계기들을 일본인들이 서울 공간을 장악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포착하고자 한다. 또한 본정 상가를 만들어 내고 지속시킨 ‘사람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상업·문화 가로로서 본정이 지니는 특유한 성격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일제하의 본정이 남촌(南村 =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정 상가를 정밀하게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흡하나마 경성상업회의소(상공회의소)의 조사자료와 신문기사 등의 연대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하 본정 상가의 변화상을 거칠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본정 상가의 분포에 대해서는 『경성상공명록(京城商工名錄)』 각년판을 참고하였으며, 본정 거주자의 경력은 『조선신사록』, 『경성신사명록(京城紳士名錄)』 등의 인명록을 토대로 하여 조사하였다.

## 2.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과 本町 商街

### 1)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

외국인의 서울 거류가 합법화된 것은 1882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1884년의 조영조약(朝英條約) 체결 이후의 일이었지만, 일본 민간 상인은 이미 1882년부터 불법적으로 서울에 진출하고 있었다.<sup>2)</sup> 1882년 임오군인폭동을 계기로 청국 군대와 상

---

2) 일본 민간인의 서울 거류시점에 대해 일본측 공식기록은 천편일률적으로 1885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불법적인 서울거류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서울거류가 청국인보다 늦었던 만큼 일본인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성장하였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민이 서울에 들어오고 뒤이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자, 일본 역시 군대와 함께 상인들을 서울에 진입시켰다. 물론 이 때까지만 해도 일본 상민의 서울 체류는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어용(御用)을 이유로 자국 상인들의 서울 거류를 정당화하였다. 이 때 서울에 들어온 일본 상인들은 협동상회(協同商會), 협동조(協同組), 대창조(大倉組) 등의 사원 10명 내외로서 공사관 부근에 점호(店戶)를 짓고 일본 공관과 군대에 소요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음 해인 1883년에는 인천에 있던 일본 상인들 일부가 서울에 진출하였다. 『경성부사』는 당시 서울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관측이 이들의 진출을 억제하였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sup>3)</sup>

1882년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재차 서울에 입성하였을 때 공사관으로 삼았던 곳은 왜성대 아래 이종승(李鍾承)의 저택이었고, 그 주변에 육군소좌 하타노(秦野毅之一)가 거느리는 중대 병력의 공사관 호위병이 주둔하였다.<sup>4)</sup> 따라서 이들과 함께 입성한 상인들 역시 왜성대 아래, 현재의 남산동과 주자동 일대의 민가를 임차·점유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고 입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해 10월, 교동(校洞)에 새 일본 공사관이 마련된 후에도 여전히 이 일대에 머물렀다. 영사관이 교동의 공사관 건물을 같이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sup>5)</sup> 이들이 이같은 ‘불편’을 무릅쓴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은 1882년 10월경에는 이미 남산 기슭에 안정적·연구적인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1883년경에는 이들 중 상당수가 조선 정부와 직접 거래하고 있었고,<sup>6)</sup> 그런만큼 부분적으로는 민간 상인을 상대로 한 거래도 이루

3)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24쪽.

4) 같은 책, 548쪽.

5) 같은 책, 570쪽.

6) 『京城府史』의 다음 기록은 이 무렵 일본 상인과 조선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883년봄부터 정부는 경희궁내, 창덕궁 뒤쪽 및 만리창의 3개소에서 담오전을 주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료인 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前期 商人은 공관 어용 외에 뜻밖의 부업을 발견하고 인천 주재 掘口, 濱田, 協同商會 등은 등의 수입을 주업으로 하였으며, 2-30명의 상인은 끊임없이 경인간을 왕복하기

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885년 일본이 남산의 녹천정(綠泉亭) 자리에 새 공사관을 신축한 데에는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거류지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정동(貞洞) 일대의 서구 공사관들이나 현 명동의 중국 공사관에 비해 왜성대의 일본 공사관은 궁궐(宮闕)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불리한 위치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왜성대의 일본 거류지는 ‘기투자(既投資)된 일본 자산’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실 1883년경에 이미 일본 민간인 거류자는 서울의 외국인 중 최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청국인들에게만 서울 거류가 허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관 신축 공사 명목으로 일본인 노동자 70여명이 입경, 주류하고 있었던 것이다.<sup>7)</sup> 이들이 공사관 완공 이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렀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뒤이어 1885년부터 일본 민간인의 서울 체류가 합법화되면서 건축수요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수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895년경 서울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인 중에서 대공(大工), 좌관(佐官) 등의 건축 기술자가 상당수를 점하고 있었던 점도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공사관 조달 상인이나 건축 기술자 외에도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인과의 합작 명목으로, 또는 조선 정부에 초빙되어 서울에 들어왔다. 1882년에는 박문국(博文局)에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였고 기기국(機器局)에도 일본인 기관수 야나기타(柳田勝三郎)가 고용되었다.<sup>8)</sup> 1883년에는 오쿠가와(奥川嘉太郎)라는 자가 그 처와 동생 및 직공 수명을 거느리고 입경하여 정병하(鄭秉夏)와 함께 이동(履洞)에 사기제조장을 차린 바 있었다.<sup>9)</sup> 이처럼 일본인들의 서울 거류가 합법화되기 전에도

에 이르렀다.”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50쪽.

7)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24쪽.

8) 『仁川港開草』, 『各司謄錄』 5, 京畿道篇 5, 壬午年 8月 22日, 關仁監.

9)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22쪽.

이미 상당수의 일본 민간인들이 각종 명목으로 서울에 거주하였고, 그들 중 다수가 남산 북쪽 기슭에 거처를 정하였다.

1885년 한성조약 후 일본인들의 서울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남산 기슭의 거류지도 공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공사관이 이 해에 남산 녹천정 자리에 신축되었고, 새로 들어온 일본인들도 이미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던 이 일대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기왕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과 함께 바로 거류민 총대를 구성하였는데, 당시 거류민은 20여 호, 인구 100명 정도였다.<sup>10)</sup> 후일 서울 거주 일본인 자본가의 거두가 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 때 들어온 사람들이었다.<sup>11)</sup>

일본인들이 다수 들어오면서 일본인 거류지가 비공식적이지만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다. 일본은 조선 정부 및 청국 이사관과 협의하여 일본인의 거주지를 공사관을 기점으로 하여 영사관에서 북행하는 작은 길 — 현재의 명동성당과 백병원 사이길 — 의 양측과 그 서쪽 끝에서 현 충무로 1가 동쪽 끝 부분까지의 구간으로 정했다.<sup>12)</sup> 후일 본정이 되는 진고개가 비로소 일본 상인들의 중심 거류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일본 상인들이 정착한 남산 기슭에는 변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상점도 없었고, 고객이 될만한 부유한 조선인도 없었다. 『경성부사』는 이 무렵 일본 상인들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0) 四方博, 1941 『京城商工會議所25年史』 大海堂印刷株式會社, 4쪽.

11) “거류민은 4-5월경부터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여 일시 인천에 피난했던 市川石動과 같은 이는 이미 어용상인임으로써 1월, 井上 대사 일행에 앞서 귀경하였다. 오늘날 紳商豪富로 꼽히는 和田常市, 山口太兵衛, 中村再造, 森勝次 등을 비롯하여 이미 고인이 된 井出清藏, 木下清兵衛, 山本清記 등이 이 해에 入京하였고, 濱田商會 같은 것도 이 해 여름경에 경성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당시 濱田商會는 가장 자본이 풍부하고 거래규모도 커서 경성 상계의 패권을 잡았다. 市川石動의 協同組도 山口縣 萩의 土族 授産金を 자본으로 어용상으로 일하여 굴지의 상점이 되었다. 井出, 山本 등도 다소의 자본을 가지고 畜利를 노리면서 경영의 수완을 발휘하였지만, 뒤에 혹은 파산하고 혹은 死去하여 당시로서는 후진시되던 和田, 山口, 中村, 森의 여러 사람이 墮引持久, 赤手を 휘둘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였고, 거류지의 성쇠와 함께 드디어 금일의 지위와 부를 쌓기에 이르렀다.”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29쪽.

12)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77쪽.

“당시 일본상인의 처지는 비참한 것이었다. 일본상인은 중국인의 압박에 더하여 조선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다. 일본인은 조선 관리에게 물건을 팔고도 값을 받을 수 없었으며, 돈을 빌려주고도 증서 유무에 관계 없이 외아문의 도장이 없는 것은 조선정부는 그를 사차(私借)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아 채권을 잃고 파산하는 상점도 있었다. 중국인이 경성 내외 도처에 당당한 점포를 자랑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일본인은 오직 남산 기슭 한 모퉁이에 엮드려 있는 데 불과하였다.”<sup>13)</sup>

일본 상인의 곤경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생각되지만,<sup>14)</sup> 상당 기간 이들이 ‘남산 기슭 한 모퉁이’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 무렵의 일본인들은 조선인 가옥을 임차하여 상품을 점두(店頭)에 늘어놓고 조선인을 내세워 영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5)</sup>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인 거류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887년에는 60여호를 헤아리게 되었고, 점포로는 양반물(洋反物 : 양품) 상점 약 10호, 약종상 5호, 잡화상 10여호, 과자상 10호, 질상(質商) 10호가 생겨 조선인을 상대로 영업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진고개 거주 일본 상인의 다수는 일확천금의 꿈을 지니고 적수공권으로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갖은 기만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인 고객으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데 열중함으로써 일본인들 스스로가 “상업상 덕의(德義)를 잊고 거류민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많다고 고백할 정도였다.<sup>16)</sup> 일본 상인들의 이같은 기만적 태도는 전통적인 배일정서를 한층 자극하여 장기적으로는 일본 상권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87년 2월, 서울 거주 일본인들이 상업의회(商業議會)를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 상인

13)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553쪽.

14) 일본 상인들은 남촌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韓商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통상조약상의 ‘一物再稅禁止’ 규정을 내세워 無稅로 영업함으로써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1880년대 후반에는 韓商들이 ‘日商으로 인해 모두 失業할 지경’이라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戊子九月十八日 白木塵 元必成等 所志」, 『各處所志叢錄』 참조.

15)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77쪽.

16) 같은 책, 589쪽.

내부에 규율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일본 상인들은 상업의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한편, 자신들이 처한 지역적 편재성(偏在性)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종로나 남대문로의 시전가(市塵街)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인(韓人)들의 배일기세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일본인들의 도심부 진출이 가능해진 것은 1891년 영사관에서 「노점영업규칙(露店營業規則)」을 제정하고 일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순사(巡査)를 배치하면서부터였다.<sup>17)</sup> 일본인들은 이를 계기로 진고개를 벗어나 남대문 주변으로 진출하여 남대문통, 남대문 조시(朝市) 등에 출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순사의 무력적 보호 아래 일본인들의 남대문 조시 진출은 급속히 확대되어 이윽고 ‘장내(場內)의 태반은 일본 거류민(居留民)’이 되는 현상이 빚어졌다.<sup>18)</sup> 남대문 방향으로 진출하는 일본인 행상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인 거류지도 같은 방향으로 슬금슬금 확대되었다. 후일 ‘센긴마에 광장’이 되는 남대문과 진고개의 교차점 주변은 1890년대 초반에 이미 사실상 일본인 거류지로 변하였다.

## 2) 대한제국기의 본정 상가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같은해 친일적인 갑오 개화파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서울 거주 일본 상인들은 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 상인들의 힘겨운 경쟁상대였던 청상(淸商)들이 대거 서울을 떠났으며, 일본 상인들은 그 빈 자리를 재빨리 채워 나갔다. 한편 갑오 개화파 정부의 ‘자유주의적·근대적’ 경제정책들은 일본 상권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뿐

17) 四方博, 1941 『京城商工會議所25年史』. 大海堂印刷株式會社, 28-30쪽.

18)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618-20쪽.



아니라 그동안 일본 상인들에게 잠재적·현실적 위협요소였던 불안정한 토지소유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894년 5월, 조선정부는 새 가권(家券) 제도를 마련하여 토지 소유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 가옥을 매수하는 방식은 직접 구입하는 방식과 전당(典當)을 통해 압류한 후·채무 불이행을 빌미로 소유권을 탈취하는 방식이 있었다. 특히 서울에 처음 들어온 일본인들은 조금만 돈이 모이면 질점(質店)을 열었고 비교적 규모가 큰 무역상조차 질옥(質屋)을 겸하는 등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 토지 가옥을 소유하는 데에는 전당(典當)이 큰 몫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4년 이전에는 가권(家券)에 대한 공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위조 가권이나 중복 전당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은 대개 일본측의 압력에 의해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인의 토지 소유 확대에 중대한 장애였다. 조선 정부의 새 가권제도는 바로 매매, 전당시에 관허를 받도록 한 것으로 중복 매도나 중복 전당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 것이었다.<sup>19)</sup>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조선인 가옥을 매입, 압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1894년 말 남대문통에 최초의 일본인 점포가 생긴 이래,<sup>20)</sup> 일본인들의 남대문통 진출은 원(原) 진고개의 상권을 위축시킬 정도로 가속화하였다. 일본 영사관측에서는 신규 이주자들에게 남대문통으로 진출하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다.<sup>21)</sup> 경강(京江)과 도성을 잇는 관문으로서 남대문통의 상업적 가치에 주목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규 이주자는 물론 원 진고개 거주자의 상당수가 속속 남대문통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본정 1정목이 되는 지구가 모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다. 일본 영사관측에서는 일본인 거주자와 남대문통을

19) 『通商彙纂』 2, 473-76쪽.

20) 京城府, 1934 앞의 책, 635-6쪽.

21) 『通商彙纂』, 35호 「28年中 京城진고개地方道路ノ改修」, 8-9쪽.

있는 도로를 개착함으로써, 남대문 - 진고개를 중심 상업지구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sup>22)</sup>

일본인들이 진고개 - 남대문통 구간을 장악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인 가로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일이 조선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1895년 4월 16일 한성부윤 유정수(柳正秀)의 명의로 발포된 가가(假家) 금령(禁令)이 그것이다.<sup>23)</sup> 이 때 한성부윤은 ‘도로를 범(犯)하여 가옥을 건축하는 일’을 일체 금하는 지시를 내리고, 아울러 일본인들에게도 그 뜻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금령의 취지는 일차적으로 도로의 원래 너비를 회복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아울러 일본인들의 남대문통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이 금령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 금령(禁令)은 강력히 경성 전시가(全市街)의 개량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본방(本邦 - 일본) 상인이 남대문통에 속속 한인의 가옥을 매입하여 그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길을 범(犯)하여 일본식 새 가옥을 건축하는 자가 자못 많았다. 본방인(本邦人)이 건축한 가옥은 한인의 가사(假舍)와 달리 국왕폐하의 행행(行幸) 때에도 그를 철거할 수 없었으므로 그 축조를 제지할 목적이었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이 금령은 의도야 어찌되었든 일본인들의 남대문통 장악을 안정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대문로변에 일본인이 새로 가옥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대신에, 진고개와 남대문을 잇는 길가의 한인 가옥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

22) 1895년 일본 영사관의 주도로 개착된 도로는 진고개 - 남대문통을 잇는 도로, 진고개 -銅峴을 잇는 도로, 진고개 - 竹洞을 잇는 도로의 3개 도로였다. 『通商彙纂』 35호, 「28年中京城진고개地方道路ノ修理(29年 1月 24日附 在京城領事館報告)」, 8-9쪽. 泥峴과 남대문로를 잇는 도로에 대한 거류민단 차원의 개수작업은 1901년에도 이루어졌다. 京城居留民團投所, 1910 『京城發達史』, 106쪽.

23)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635-6쪽. ; 『通商彙纂』 35호, 10-11쪽.

24) 『通商彙纂』 35호, 「28年中 京城泥峴地方道路の修理(29年 1月 24日附 在京城領事館報告)」, 10-11쪽.

는 길가의 한인 가옥주들에게 약간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모두 철거하였다. 1895년 11월에 이르러 남대문과 진고개를 잇는 길 좌우의 나동(羅洞), 명동(明洞), 난동(蘭洞), 낙동(駱洞), 장동(長洞), 금동(金洞) 등지에 있던 한인 소유 가가(假家)는 대부분 철거되었고, 가로변 가옥은 전부 일본인의 소유가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sup>25)</sup> 일본인들의 남대문로 진출을 배경으로 하여 1897년에는 일본 영사관, 일본 거류민 총대역장(總代役場), 상업회의소가 모두 남대문통과 진고개의 접속지, 후일의 본정 1정목으로 이전, 신축되었다.<sup>26)</sup> 이 지점이 본정 1정목이 될 수 있는 공간적 기반 조성이 완료된 것이다.

진고개와 남대문로의 교차점 일대가 일본 상인들의 중심 거점이 되기는 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지점이 서울 상계에서 점하는 지위는 그리 높지 못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 무역상의 활동이 한층 활발해졌지만, 그들의 중심적 활동무대는 어디까지나 개항장 일대였다. 당시의 ‘미면교환체제(米綿交換體制)’ 하에서 서울은 무역상이 자리잡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 서울 거류 일본 상인 중 대규모 무역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일본 상인들의 거래 상대는 일본 공사관이거나 일본 군대가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소수의 한국 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만 육의전의 금난전권(禁亂塵權) 폐지나 단발령(斷髮令)과 같은 정부의 상업·문화 근대화정책이 시내에 약간의 추가적인 소비시장을 열어 주었을 뿐이다. 더욱이 일본인 이주자는 초기 이주자든 후기 이주자든 대개 일확천금을 노리고 적수공권으로 들어온 자들이었다. 특별한 투기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한, 대부분은 영세상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894년 현재 서울 거류 일본인 중 최다수를 점했던 것은 서양 물화를 판매하는 잡화상이었고, 두번째는 남대문 조시(朝市)에 출시(出市)하는 행상이었다.

25) 『通商彙纂』 제52호 호외, 「28年中 京城商況年報(29年 7月 6日附 在京城領事館報告)」, 63쪽.

26)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664-5쪽.

### 3) 러일전쟁 이후 本町 상가의 확대

1904년의 러일전쟁과 뒤이은 통감부·이사청 설치에 서울 거주 일본인들을 일순간에 ‘특권적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러일전쟁 발발 후 1910년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될 때까지 수많은 군인, 관공리, 작부(酌婦)가 서울로 몰려들었다.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3년 3,865명이던 서울과 용산 거주 일본인은 1910년 군인을 제외하고도 47,14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중 대다수가 비(非)상업인구였다. 서울에 비로소 일본인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급속도로 확대된 것이다.

일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역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남산골(현재의 남산동·주자동 일대)에서 진고개를 거쳐 남대문로 동측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인 거류지는 러일전쟁 직후 남대문 내외, 옥정(旭町), 명치정(明治町), 남산정(南山町), 영락정(永樂町), 본정 6정목 이동(以東) 지역으로 뻗어나갔다.<sup>27)</sup> 1910년 한국 강점 이전에 이미 일본인 거류지는 북쪽으로 구리개(黃金町)까지, 동쪽으로는 쌍림동(新町)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또 대규모의 일본군 주둔지가 용산에 형성됨으로써 남대문로를 따라 용산으로 이어지는 연도 주변도 이윽고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서진(西進)하지 못한 것은 1907년까지 경운궁(慶運宮)이 황궁(皇宮)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의 거류지 확대 과정은 동시에 한인의 토지자산이 강제로 수탈당하는 과정이었다. 일본은 군용지 명목으로 용산과 이태원 일대 300만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남촌 일대에 산재해 있던 술한 관아 부지들을 무상으로 접수하고 일본인들에게 헐가(歇價) 불하하였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가조차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27) 京城居留民團役所, 1910 『京城發達史』 133쪽.

약탈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04년 일본인들은 쌍림동(新町) 일대의 토지 7,000여평을 평당 1엔(円)씩에 강제매수하였는데, 다음해인 1905년에 이 일대의 평당 차지료(借地料)는 보증금 최고 100엔(円) 이상에서 최저 30엔(円) 이상, 월세 최저 7전(錢)이었다.<sup>28)</sup>

서울 거류 일본인 인구가 5만에 육박하게 되면서 그들은 지명(地名)조차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자신들이 웅거해 왔던 진고개는 혼마치(本町)가 되었고, 그 북쪽 길은 메이지마치(明治町)가 되었다. 조선 침략과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에 공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기념도 잊지 않았다. 본정에서 경운궁으로 나가는 길은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가 되었고, 처음 일본 공사관이 자리잡았던 경기감영 앞 길은 다케조에마치(竹添町)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지어 놓은 명칭은 1914년 4월 공식 지명으로 확정되었다.<sup>29)</sup> 본정은 이렇게 늘어나는 일본인 거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시장으로 재빨리 변신하였다. 토지·가옥 가격과 임대가격이 급등하자 일찌감치 넓은 대지를 잡아 두고 있던 일본인들이 다투어 새 건물을 건축하였다. 건축자재가 동이 나고, 건축청부업이 호황을 누렸다. <부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 서울 거류 일본인 직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관공리, 점원, 고원, 회사원, 직공 등 소위 ‘월급쟁이’를 빼면 대공(大工)과 건축청부업자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강점할 때까지 5년여 동안, 본정 일본 상인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본정 상인들의 성공담 몇가지를 들어 보자.

---

28)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129-30쪽. 일본인들은 이 일대 토지 매입과정에 대해 ‘그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의 민회 의장 菊田眞大가 거류지를 위해 수완을 발휘하여 한인으로 하여금 奇利를 탐할 여지가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9)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293쪽.

① 세키(關) 상점

무역상 겸 질옥(質屋)인 동점은 본정 5정목에 있다. 1889년에 개업한 것으로 당시 굴지의 오래된 점포이며 자력이 풍부한 대상점으로 명성이 높다...점주는 세키 한타로(關繁太郎)씨로...1888년 10월 대주(對州)에서 선어(鮮魚) 약간을 가지고 인천에 와서 폭리를 얻음으로써 조선이 유망함을 알고 익년 2월 경성으로 옮겨 영주계획을 세웠다. 처음 금건, 방적사, 석유류를 취급하였는데 그 수익이 도저히 희망을 따르지 못하자, 바로 떨치고 일어나 남대문시장 행상인이 되었다....그러기를 3년여, 점차 기초가 잡히자 전당국을 열었고 이어 일청전쟁 때 군대 용달을 명받았으며, 전후(戰後) 인삼을 재배, 제조하여 크게 발전하였다.<sup>30)</sup>

② 마스다(増田) 상점

본정 3정목, 모리안(森安) 상점 인근에 있는 일대 서양가구상점이다....동점은 1896년 12월에 개업하였고 처음에는 잡화 및 도기상으로 출발하였지만 시세의 변천과 함께 서양가구 및 실내장식품상이 유망하리라 생각하고 드디어 이 업으로 전환하였다. 일로전쟁 무렵 우리 상권의 발전과 함께 일대 비약을 이루었다....관공아(官公衙)의 용명(用命)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점주 마스다 미쓰호(増田三穂)씨....<sup>31)</sup>

③ 이토추구미(伊藤組)

동조(同組)는 본정 3정목에 있으며 영업주는 이토추 토모마츠(伊藤友松)씨로 운반 및 인력거업을 경영한다....일청전쟁 당시 공병 제6대대 치가노(近野) 중위에게 예속되어 도래했고...전후 의연히 체류하여 1895년 8월 이 업을 시작하였다. 당시부터 공사관 및 영사관의 어용을 특장받았고 계속 관청의 특명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과거 영국인이 경영하던 은산금광에 대해 폭민(暴民)이 불온한 조짐을 보이자 당시 야마자(山座) 공사관 서기관을 통해 보호 응원의 위촉을 받고 수백명의 인부를 거느리고 가 그에 임한 사실이 있다. 또 불란서인이 경영하는 강원도 모 금광 채굴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촉을 받

30) 川端源太郎, 1910 『京城と内地人』日韓書房, 184-5쪽.

31) 같은 책, 187쪽.

있고 온양온천 지역 확정 때에도 씨를 귀찮게 하여 난민을 미연에 방지하였다....현재의 인력거업을 보더라도 1,000여의 차대를 한마디에 모으고 한마디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씨 말고는 찾을 수 없다.<sup>32)</sup>

④ 쿠기모토(釘本) 상점

동점은 본정 5정목에 있다....점주 쿠기모토 토오지로(釘本藤次郎)씨는...적수공권으로 1895년에 도래하여 근검역행으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영업종목은 금물류(金物類) 일체로서 건축재료를 비롯하여 일상의 기구 모두를 구비하고 있다....각종 채권 및 주권의 현물중매를 경영하며...<sup>33)</sup>

⑤ 긴토(近藤) 골동점(骨董店)

동점은 본정 4정목에 있다. 점주 긴토 사고로(近藤佐五郎)씨는...약제사일을 하다가 1895년 부산공립병원에 초빙되어 약국장으로 와서 재직 수년만에 상업으로 전업, 1904년 경성에 와서 골동상을 시작하여...거액의 이득을 올렸다.<sup>34)</sup>

⑥ 가메야(龜屋) 상점

본정 3정목 현 한국은행을 마주보고 있는 웅장한 양관(洋館)의 대점포가 이것이다. 점주(店主)는 스스무 다츠마(進辰馬)씨로서 1896년 1월에 개업했다. 처음 미초기(三枝) 상점과의 관계 하에서 개점하였지만, 후에 동씨가 그를 계승하였다. 이래 몇차례 풍운을 만났지만 씨의 비범한 경영력은 결국 현금의 번영을 초래하였다. 박래(舶來) 잡화 및 양주, 양식료품, 양식기구상으로 파칭할만한 일대 상점이다....일로전쟁 후 우리 국권의 확장파 동시에 갑자기 팽창하여 1904년 안동현 지점을, 1906년 평양지점을 개설하였고 다시 1909년 본정 3정목에 지점을 증설하였다.<sup>35)</sup>

---

32) 같은 책, 191-2쪽.

33) 같은 책, 180-81쪽.

34) 같은 책, 215쪽.

35) 같은 책, 174-5쪽.

⑦ 오하시(大橋) 상점

1905년 11월 개업하였다. 본점 8정목에 본점을, 용산 및 경성 산림동에 지점을 두고 있다. 주된 영업은 흑연의 수출, 사리원에서의 정미업, 감옥 작업품의 청부, 견, 작잠, 상묘(桑苗)의 매입, 기타 신탄판매, 질옥(質屋) 등이다. 점주는 오하시 세이미츠로(大橋清三郎)씨로서 1905년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재학중 남청(南淸) 북청(北淸) 및 한국 각지를 만유하였고...1905년 9월에 도래하여 스즈키(鈴木) 모(某)가 경영하는 일한랑상회(日韓莫商會)의 뒤를 이어 경성 안동(安洞)에서 연초제조업을 개시하였는데 바로 폐업하고 현 영업으로 변경하였다.<sup>36)</sup>

⑧ 쇼사키(篠崎) 상점

점주 쇼사키 한스케(篠崎半助)씨는...1899년에 도선(渡鮮)할 때에 나이 겨우 18세였다. 먼저 상업견습으로 인천 마치다(町田) 상점에 들어가 근무한 지 2개년여만에 독립하여 미곡상을 경영하면서 적은 자본으로 갑자기 수만의 부를 얻었다. 다시 나아가 정미업을 개시하였다. 이 또한 시기를 잘 타서 장죽의 진보를 이루면서 발전하였지만 그 때 마침 징병검사에 합격하여 일단 귀향하여 입영했다. 일로전역 후 종군한 공에 의해 훈장과 사금을 받았다. 1907년 다시 경성에 와서 문방구, 도량형, 측량기구상을 개업했다. 구한국정부시대에 궁내부 용달은 거의 씨의-독점사업이었다. 병합후에는 총독부의 어용을 이어 금일에 이르고 있다. 또 1908년 이래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자 측량기구기계의 수요가 심히 많았는데 그 수입(輸入)을 거의 한 손에 쥐었다.<sup>37)</sup>

위의 여덟개 사례를 통해 서울에서 성공한 일본인들이 치부(致富)한 방식을 유형화할 수 있다. 앞의 세 사례는 ‘정상형(政商型)’의 전형을 보여준다. ①과 ②의 사례는 관아 및 군부(軍部) 용달을 통해 치부한 사례이고, ③은 군(軍), 관(官)에 대한 용달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

36) 같은 책, 184쪽.

37) 岡良助, 1915 『京城繁昌記』博文社, 454-6쪽.



의 저항을 진압하는 폭력청부까지 겸한 사례이다. 1905년 이전까지 종로 시전 상인이 전담하고 있던 정부 용달권이 본정 일본 상인들에게 넘어감으로써 한상과 일상(自商)의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본정 상인은 당당한 정부 조달상으로 안정적이며 대규모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④, ⑤는 굳이 유형화한다면 ‘자수성가형(自手成家型)’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모두 청일전쟁 이후 서울에 들어와 일본 세력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례 ⑥, ⑦은 ‘분리독립형(分離獨立型)’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 상사(商社)의 고용원으로 입경(入京)하였다가 본점과 관계를 끊고 독립한 사례이다. 사례 ⑧은 이상의 세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유형이다. 본정의 일본 상인들은 이처럼 정부 및 군부에 대한 용달권의 확보, 일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토지가격의 양등 등을 통해 급속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이 마음대로 한인을 기만하고 수탈할 수 있었던 정치적·사회적 사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본정 상인들이 전당업을 겸하였으며, 이들은 기한이 차기도 전에 전당물을 매도해 버리는 등 갖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하여 한인의 재산을 탈취하였다. 또 이 무렵까지도 대다수의 본정 상인들은 서울에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기반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어디까지나 일확천금한 후 귀국하는 일이었다. 한인 고객은 바로 일확천금을 위한 기만의 대상이었을 뿐이다.<sup>38)</sup>

38) 일본 상인들의 이와 같은 성향은 1920년대 중반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다음 기록이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생활의 궁박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주를 계획한 자의 대부분은 내지의 소위 굶는 자가 많고, 물질의 획득 이외에 아무런 포부가 없으며 다소 축재하게 되면 바로 귀향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장래에 뜻을 두지 않고 다만 자기의 이익을 영위하는 데 급급한 상태이니, 소위 식민지 기본은 도처에 넘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조선에 들어와 예상과 다르면 속속 고국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宣傳에 따라 생각하고 있던 渡鮮을 중지하는 자도 적지 않다.” 京城商業會議所 1924. 9. 『朝鮮經濟雜誌』 105호, 29쪽.

### 3. 일제하 본정 상가의 구조와 변천

#### 1) 남촌개발과 본정상가

1910년 한국 강점 이후 본격화한 총독부·경성부의 전차 노선 확대 및 시구개수는 정확히 일본인 거류지의 확대방향을 따라 진행되었다. 1905년 이전에 부설된 전차선로는 서대문 - 청량리선(1898), 종로 - 남대문선(1899), 남대문 - 구룡산선(1901), 서대문 - 남대문선(1901), 서대문 - 마포선(미상)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기존 대로를 따라 이어진 것이었다.<sup>39)</sup> 그러면서도 이들 노선은 황궁(皇宮)인 경운궁을 전차선로망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나아가 전통적인 경강 상업의 중심지인 마포와 신흥 공업지대로 성장하고 있던 용산을 국중(國中)의 대로인 종로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이후 1910년대에 신설된 전차선은 종로 - 동자동선(1910.8), 창경원선(1910.12), 원정선(元町線; 1912.6), 황금정선(1912.6~12), 왕십리선(1914.6), 본정 연장선(1915.8), 광화문 - 통의동선(1917.4)으로 도성 내부와 용산 지역을 잇거나 황금정을 따라 동쪽으로 뻗는 선, 또는 일본인 거류지와 북촌의 위락·위생시설(창경원·총독부의원)을 잇는 선에 국한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종로 - 안국동(1923.8), 통의동 - 효자동(1923.10), 총독부 - 안국동(1929.8) 등 북촌 내부의 전차선도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총독부가 경복궁 자리에 들어선 때문이었을 뿐, 조선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20년대에 남촌에 전차선로가 추가·신설되지 않았음은 이미 1910년대에 일본인을 위한 전차선로망이 완결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로망 역시 일본인 거류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국 강점 직전부터 황토현 광장을 절개하는 등 일부 도로의 개수에 착수했던 일제

39) 李惠恩, 1988 「大衆交通手段이 서울시 發達에 미친 影響」, 『地理學』, 37, 23-24쪽.

는, 1912년부터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의 전통 가로망을 전면적으로 개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12년의 시구개수(市區改修) 예정노선은 조선시대 이래 서울의 전통적 중심이었던 황토현 광장과 일본인 거류지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던 황금정 광장에 방사선형 가로망을 만든다는 거창한 계획하에 마련되었으나,<sup>40)</sup> 이 계획은 재정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그 대신 1919년에 수립된 신계획에 따라 가로망 개수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결과 서울의 가로망은 대체로 직선격자형을 취하게 되었지만, 조선인 거주 지역인 북촌이 기존 도로의 확폭(擴幅)에 머문 경우가 많았던 반면, 남촌에는 새로운 도로가 다수 건설되었다. 또 북촌의 도로에 비하여 남촌의 도로가 한층 세분화된 면모를 띠게 되었다. 도로의 신설, 확장은 남촌과 북촌 사이의 남북간 도로에서 먼저 추진되었고, 1920년대부터는 동서간 도로에 집중되었다.<sup>41)</sup> 이러한 양상 역시 일본인 거류지의 확대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황금정 길은 1912년에 대한문 - 광희문간 도로가 건설되면서 남촌의 대표적인 가로가 되었다. 황금정길은 보차도(步車道)가 구분된 서울 최초의 도로였으며, 도로 개설 직후부터 그 좌우에 동양척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 대규모 은행, 회사가 속속 들어섬으로써 중심업무지구로 급성장하였다. 이제 본정은 기존 대로인 남대문로 외에 신설된 영락정, 약초정(若草町), 초음정(初音町) 등 남북방향 도로를 통해 황금정과 이어지면서 두 개의 대로와 연결하여 자신의 중심성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센긴마에 광장’의 형성도 본정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97년 일본영사관과 거류민 총대역장, 상업회의소가 남대문로와 진고개의 교차점에 자리잡음으로써 이 일대는 일본인 거류지의 확고한 중심이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이 지역은 일본의 한국

40) 金基虎,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 서울학연구소, 54쪽.

41) 김영근, 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54쪽.

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배력 강화에 발맞추어 서울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제일은행 경성지점이 일본 영사관 맞은편에 새 사옥을 짓기 시작한 것은 1907년 11월이었고 이 건물은 1912년 1월, 제일은행 경성지점으로부터 업무 일체를 인계받은 조선은행 사옥으로 준공되었다. 조선은행 사옥이 준공된 직후 경성우편국도 새 건물을 착공하여 1915년에 준공하였다. 경성부 청사, 조선은행 사옥, 경성우편국 청사로 둘러싸인 ‘센긴마에 광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 ‘센긴마에 광장’은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의 조선히otel(1914), 황금정의 동양척식회사(1910) 및 조선식산은행(1918)과 연계되면서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1926년 경성부청이 태평통의 구 경성일보 사옥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본정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그 부지에 미쓰코시(三越) 백화점(1934), 조선저축은행 사옥(1935)이 대신 들어서면서 1930년대에는 상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본정 일대에는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 히로다(平田)백화점이 잇따라 신축되었고, 남대문로에도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이 신축되어 남대문로 - 본정 1정목은 남촌의 대표적 백화점가(百貨店街)가 되었다.

본정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울의 중심지로 부각됨에 따라 이 일대의 기반 시설이나 가로 운영도 특권화되었다. 사실 본정 도로로는 일본인 스스로가 한탄한 바와 같이, 대규모 상업가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시구개정사업의 결과 서울의 주요 도로가 확폭되고 있었던 데 반해, 본정 도로로는 1897년과 1901년 두차례의 개수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의 계기를 갖지 못한 채 협소한 채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지가(地價)가 높았던 데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 건물이 많았던 데 기인한 것이었다.<sup>42)</sup>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들의 유력한 치부 수단이 되었던 토지가격의 앙등이 오히려

42) 『毎日申報』, 1922. 12. 7 「總督府가 新廳舍로 移轉하면 進高개의 繁華가 鐘路로」

본정 가로 개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총독부·경성부로서도 일본인의 소유권이 걸려 있는 본정에 시구개수의 칼을 들이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본정통은 1912년 시구개수 예정 계획선을 마련할 당시 폭 10간 도로로 확폭이 계획되었지만,<sup>43)</sup> 이 계획은 끝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시구개수가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건축은 계속 늘어났다.<sup>44)</sup> 1923년경, 본정통 주민들의 일부 비용 부담에 의해 부분적인 개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sup>45)</sup> 도로의 폭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30년대말까지 본정통의 가로폭은 3m80~6m에 불과하였다. 전차와 인력거가 주된 교통수단이던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 노폭이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협소한 도로는 본정 상가의 중요한 결함으로 인지되었다. 그렇다고 확폭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본정에 대한 정비는 도로 시설물의 정비, 도로에 대한 통제에 집중되었다. 본정 남쪽의 경성역 - 신정(新町) - 황금정간 도로(현재의 퇴계로) 개착 계획 역시 본정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sup>46)</sup>

식민지 시기 내내 경성부의 토목사업비는 시구개수 사업비를 제외하면 거의 전액이 남촌의 도시환경 정비에 사용되었다. 그로 인해 경성의 긴자(銀座)요, 경성 거류 일본인들의 중심 근거지인 본정 가로는 조선에서 가장 ‘근대색이 짙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본정에 민간 전등이 출현한 것은 1901년의 일이었고, 1910년 이전에 이미 가로등이 등장하였다. 일본의 한국 강점 이후 본정의 가로등 유지비는 경성부 부담이 되었다.<sup>47)</sup> 경성부는 본정 가로에 수시로 물을 뿌려 청결을 유지하였고, 1920년경에는 본정통 도로를 포장하였으며,<sup>48)</sup> 1925년

43)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303쪽.

44) 1921년 상반기에만 本町 주변의 신규 건축은 신축 181棟, 증축 10棟, 개축 1棟, 模樣개조 10棟에 달했다고 한다. 『朝鮮日報』 1921. 7. 8 「京城 建築界 狀況」.

45) 『東亞日報』 1923. 4. 2 「本町路 改修에 經費의 一部를 住民이 負擔한다고」.

46) 『東亞日報』 1925. 11. 15 「南部道路期成」.

47) 『朝鮮日報』 1931. 3. 14 「街路의 電燈도 日人街에만 置重」.

에는 포장재를 아스팔트로 교체하였다.<sup>49)</sup>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보차도(步車道)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1920년부터는 본정 1-2정목 구간에 우마차의 통행을 금지하였다.<sup>50)</sup> 본정의 우마차 통행 제한은 이속고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적 통제로 확대되었다.<sup>51)</sup>

본정의 가로 시설이 정비되면서 총독부 이전에 따라 본정통이 쇠퇴 하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물론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북촌으로 급속히 확대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이유였지만, 본정은 쇠퇴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전하였다. 총독부청사가 북촌으로 이전하고 경성부청이 태평통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본정의 지가(地價) 상승률은 여전히 경성 제일이었다. 1924년 평당 110엔(円)이던 본정 1정목의 평균 지가는 1929년 840엔으로 급등하였다.<sup>52)</sup> 지가(地價)가 오르는 만큼 본정은 고밀도화되었다. 1921년 경성우편국 뒤에 본정 상인 10여명이 합자하여 본정빌딩을 세운 것도 지가 압력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였다.<sup>53)</sup> 본정 1-2정목 구간의 고층화는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선 1934년 이후 한층 가속화되어 미나카이 백화점, 히로다 백화점 등 3층 이상의 백화점 건물과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섬으로써 본정의 가로 경관을 일신하였다. 본정은 경성에서 동경 변화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거리가 되었고, 이는 다시 본정의 상업적 지위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

48) 『東亞日報』 1924. 3. 22 「血稅 代價로 소득이 어떤가」

49) 『東亞日報』 1929. 3. 29 「道路修築請願」

50) 本町 1, 2정목에서는 오후 4시 이후 우마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朝鮮日報』 1920. 6. 24 「市內運送業者 不滿을 訴하라」

51) 本町通 차량 통행 금지 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1930년대 후반 本町通에서는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차와 자전거 등(단 인력거는 제외)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고, 일요일에는 예외조차 두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京城商店街としての本町及鍾路通の概況』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242, 昭和11年3月, 39-42쪽.

52) 『朝鮮日報』 1930. 9. 30 「올라만 가는 京城 地價」

53) 『朝鮮日報』 1921. 6. 30, 「本町入口 益益 繁昌乎」

## 2) 본정 상가의 구조와 변화

본정의 확대, 발전과정은 바로 본정 상가의 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규정하였다. 한인을 상대로 잡화점을 경영하거나 남대문 조시(朝市)에서 행상하는 일이 고작이었던 일본 상인들은 일제의 한국강점을 전후하여 다투어 본정과 남대문로 사이에 웅장한 2층 상점을 짓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의 최초 거류지가 본정통이었던 관계로 경성부내 일본인 상점의 반수 이상이 본정에 밀집하였다. 1910년의 기록에 따르면, 1910년 현재 경성부내 일본인 상점수는 총 171개소였는데, 그 중 본정에 소재한 것이 92개소였다.<sup>54)</sup> 업종도 다양해졌고, 구간별로도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 현재 본정 1정목은 양복점, 잡화상 등 서구 수입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도심형’ 업종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2정목에는 금물상, 오복상, 잡화상, 시계상, 양화점 등 본정 주변 일본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업종과 ‘도심형’ 업종이 혼재되어 있었다. 반면 3-5정목 구간은 오복상, 잡화상, 약종상, 가구상, 문구상 등 주변 주민을 주고객으로 하는 업종이 다수를 점하였고, 6정목에는 일본 거주민의 일상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잡화상이 주류를 점하면서도 건재상(建材商)이나 전당포 등 외곽지대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7-8정목에는 전당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당시 전당포 영업은 서울에 갓 이주해 온 일본인들이 흔히 택하는 업종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본정 상가의 구성방식이 종로의 한인 상가와는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종로의 경우 구(舊)육의전이 구간별로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맥이 이어지던 1910년대까지는 특정 업종이 특정 구간에 밀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본정은 동일 업종이 일정 구간에

54) 川端源太郎, 1910 『京城と内地人』, 223-240쪽.

집중되기 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고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종 업소의 분산배치 방식은 그 후로도 지속되어 1930년대 백화점이 본격 출현하면서부터 ‘전문점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는데, 이는 일본인 거류지가 본정 1-2정목에서부터 동쪽으로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910년대까지만 해도 본정 상가가 한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듯 하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인에게 익숙한 상거래 방식은 자기 집에서 행상(行商)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었다. 양복과 구두가 새로운 복식으로 확산되어 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수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1919년 서울 5곳에 공설시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경성에는 남대문시장과 광장시장만이 있었고, 한인은 이곳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아니면 행상을 통해 구입했다. 1919년 공설시장이 만들어진 후 그 이용자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었던 점, 나아가 명치정(明治町), 화원정(花園町) 등 일본인 거류지 인근의 공설시장만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이 무렵 한인과 일본인의 상거래 관습이 달랐던 사정을 반영한다. 한인의 일본인 상점 이용도를 낮춘 데에는 개항 이래 지속되어 온 일본 상인의 고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상인들의 불친절과 기만성은 악명높은 것이었다. 일본 상인들 다수가 새로 얻은 식민지에서 일확천금한 후 귀국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였으며, 더욱이 식민지 지배민족으로서의 오만이 작용하여 점포 주위를 배회하는 한인을 구박하거나 모욕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인이 본정 상점가를 기웃거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1910년대까지 본정 상가는 일본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본정을 찾은 한인들은 대개 일본인 도매상을 찾는 소매상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의 생활관습 변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적 지배력 강화 등이 아울러 작용하면서 이윽고 본정은 조선인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 문화와 일본식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신지식인들이 일본식 정취가 물씬 풍기는 본정에 오히려 친화력을 느꼈음은 당시의 문학작품류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다. 1922년 무렵의 사정에 대한 다음 신문 기사는 1920년대에 들어와 조선인의 본정 상가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사이 우리 사람들은 외국 물건이라 하면 입 다거물고 다투어서 쓰는 경향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같은 외국 물건이라도 기어이 본정 등지에 가서 사오는 형편이 많다.....본정 이정목에 있는 어떤 일본인 잡화점에서는 대략 매일 천여 원 가량의 물건을 판다는데 그 중에 육할 가량은 조선 사람이 사간다 하며 또는 삼월오복점(三越吳服店) 경성지점에서도 그 고객을 조사하여 보면 그 반수 이상이 조선 사람이라 하며....대판옥호(大阪屋號),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책을 사가는 사람 중에 오할이상이 모두 조선 사람이라 한다.<sup>55)</sup>

조선인의 본정 이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본정 상가의 구조가 바뀌어 이유는 없었다. 본정은 본정인 까닭에 권위를 누릴 수 있었으며, 그곳이 오만하게 버티고 있으면 있을수록 조선인은 다투어 본정으로 몰려 갔다. 본정은 이제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선진 문화의 전파장이었고, 낙후된 경성이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었다. 조선인의 이용율에 관계 없이 본정상가는 1910년대나 1920년대나 큰 차이 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26년 시점에서도 본정 1정목은 도장포, 문구, 완구점, 과자점, 금물상 등이 고루 분포하는 다양한 업종 분포를 보였지만 점포 수에서는 본정 2정목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일대에는 경성부 관사(官舍)와 은행, 회사의 본·지점, 또는 대규모 무역상이나 병원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

55) 『東亞日報』 1922. 11. 22 「商店의 顧客」

어서 소매상가인 동시에 업무지구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본정 1정목 우편국 옆에는 다수의 노점이 늘어서 있어 과거 종로통의 가가(假家)를 연상케 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sup>56)</sup> 본정 2정목은 본정통의 최다 점포 밀집지구로서 업종면에서는 본정 1정목과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점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정 2정목은 1정목에 비해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필지마다 1-2개 정도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상점 건물의 대형화·고층화 경향은 간취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본정 2정목은 생활필수품 보다는 의류나 사치품, 또는 문화용품 관련 상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도매업을 겸하는 개인 무역상이 많은 것도 본정 2정목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영락정(永樂町) 길을 건너면서 본정 상가의 분포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본정 3정목에는 식료품상, 떡집, 세탁소, 약국 등 본정 주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상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본정 4정목에는 병원, 주택, 정미소 등 생활시설이 많았다. 본정 5정목은 상가라기 보다는 주택가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1910년 이래 점포수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그 구조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본정 상가는 1926년 경성부청사의 이전,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의 강행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 중산층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큰 폭의 변화를 겪는다. 변화를 추동한 첫번째 요인은 경성부내 상점가의 확대였다. 1920년대까지 경성부에서 공설 시장을 포함한 시장 이외에 상가로 꼽은 것은 종로와 본정통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점가로 북촌의 교남동(橋南洞)과 교북동(橋北洞), 남촌의 옥정(旭町) 1정목과 명치정(明治町) 1-2정목, 영락정 2정목, 원정(元町) 2정목, 삼판통(三坂通)이 추가되었다.<sup>57)</sup> 그

56) 『朝鮮日報』 1921. 7. 10 「常設店舖 同様」. 本町 1정목 우편국 주변에 늘어서 있던 假家は 1924년 本町 주민들이 京城府로부터 해당 토지를 불하받으면서 一掃되었다. 本町 住民들이 이 토지를 불하받은 것은 처음부터 露店을 一掃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朝鮮日報』 1924. 11. 6 「本町一丁目 遞信局 所有土地 民間에 拂下키로」.

57) 京城府, 1936 『京城府商店街調査』, 2-11쪽.

런데 새로 상점가 대열에 포함된 이들 지역의 상점들은 대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었다. 본정 인근의 영락정(현재의 저동), 옥정(현재의 회현동) 일대에 신규 생활용품 상가가 형성됨에 따라 본정은 상대적으로 의류품과 문화용품 상가로 특화되는 방향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후반 시점에서 본정 4-5정목에는 일상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많았지만, 영락정을 건넌 본정 3정목은 이미 2정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변화되어 있었다(<부표 5> 참조).

본정 상가의 변화를 추동한 두번째 요인은 대형 백화점의 신축·증축이었다. 경성에 백화점을 자처한 잡화점이 등장한 것은 이미 대한제국기부터였지만,<sup>58)</sup> 근대적 백화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06년 서울에 설치된 미쓰코시(三越) 오복점(吳服店) 출장소가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으로 승격한 것은 1929년이었고, 조지야(丁字屋)는 1921년, 미나카이 오복점은 1922년, 히로다 오복점은 1926년에 설립되었다.<sup>59)</sup> 그러나 1920년대의 백화점은 규모가 큰 잡화점의 성격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들 백화점이 다투어 대형 건물을 짓기 시작한 1930년대에 가서야 백화점은 경성 상업계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미쓰코시 오복점이 구 경성부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1927년의 일이었다. 이 건물은 6년여의 공사 끝에 1934년에 가서야 완공되었고, 미쓰코시 백화점이 입점하자마자 바로 본정의 대표적 백화점이 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1932년에는 역시 본정 1정목에 미나카이 백화점이 대형 점포를 신축하였다. 또 1939년에는 명치정 맞은편 남대문로에 조지야가 새 건물을 완공하였다.<sup>60)</sup> 남촌의 4대 백화

58) 1908년경에 설립된 漢陽商會는 스스로 조선 유일의 '데파트먼트 스토아'임을 다음과 같이 자랑한 바 있다. '漢陽商會는 해외 제제조장과 특약을 체결하고 漸新流行의 양호품을 수입하며 우리나라 중앙되는 한성 중로에 位하여 장대한 가옥에 화려한 진열로 우리나라 제일되는 데파트먼트 스토아, 즉 최완전한 점포를 성하였습나이다.'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일자 광고.

59) 황명수 외, 1992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출판부, 198-202쪽.

점 중 3곳이 본정 1정목에 자리잡음으로써 이 곳은 경성의 대표적 백화점가가 되었다. 본정 1정목의 소규모 잡화점이 백화점과 경쟁하여 승리할 가능성은 없었다. 이들은 백화점과 유사한 형태의 연합상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전문점으로 특화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의 본정 1정목에는 문방구상, 완구상, 서적상 등 정도가 독립적 점포로 남았고, 나머지 잡화상들은 고층 건물에 입주하여 백화점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어 갔다.

세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1930년대 이후 새로운 상품이 증가하고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이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라디오, 축음기, 사진기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기가 조금씩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이들 제품을 판매·수리하는 업소가 본정 1-2정목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sup>61)</sup> 경성에 다방(茶房)이 처음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20년대 초반의 일이었지만,<sup>62)</sup> 다방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경부터였다.<sup>63)</sup> 이 무렵부터 본정과 명치정 일대에 다방이 밀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업소는 그 특성상 길가에 자리잡기 보다는 길 뒷쪽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정통의 경우 주로 본정 2정목과 3정목 사이에 들어섰다.

이로써 1930년대말의 본정 상가는 의류, 사치품, 문화용품을 취급하는 1-3정목 구간과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4-5정목 구간으로 구분되었다.<sup>64)</sup> 1920년대까지 이 구분선은 영락정 길을 경계로 하여 2-3정목 사이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심형’ 상가의 범위가 본정 3정목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별 차이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본정 1정목에는 대형 백화점과 복

6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0 『서울육백년사』 4, 501-502쪽.

61) 우리나라에서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6년이었지만, 초기에는 수신율이 극히 낮았다. 라디오 방송의 수신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1933년 이중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같은 책, 649쪽.

62) 서울 최초의 다방은 1923년에 本町에서 개업한 「二見(후다미)」이었다. 같은 책, 1251쪽.

63) 같은 책, 1253쪽.

64) 「京城商店街としての本町及鍾路通の概況」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242, 昭和11年3月, 39-42쪽.

합상점 등 규모가 큰 상점이 밀집해 있었던 반면, 본정 2정목에는 1정목과 대략 동일한 업종분포를 보이면서도 규모가 작은 상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또 본정 3정목은 본정 2정목과 4정목의 ‘전이(轉移) 지대’로서의 성격을 띤 혼합형 상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해방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 3) 본정의 상인

러일전쟁 이전까지 서울의 일본 상인들은 수출입무역 보다는 일본 공사관 용달이나 서울 내의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매 상업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본정 상가는 처음부터 소매상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이 확고해지고, 경부·경의 철도의 완공으로 서울의 물화 수집·배급능력이 강화된 이후에야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다.<sup>65)</sup> 서울에 경성 세관국 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1906년이었고, 이 때를 전후하여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경성역) 주변에 다수의 무역업체들이 자리잡았다. 경성역 주변 옛 칠패시장 — 봉래정(蓬萊町) — 일대에는 철도운송을 보조하는 소운송업체들과 수산시장이 들어섰고, 경성역에서 남대문을 지나 황금정으로 북상하는 길 — 남대문통 — 에는 다수의 대규모 무역업체들이 들어섰다. 이로써 남대문로 = 무역 및 도매상권, 본정 = 소매상권이라는 서울거류 일본인 상권의 공간적 분할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분할은 식민지 시기 내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표 1> 참조).

65) 이현창, 1996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259-260쪽.

<표 1> 경성부내의 상업지구와 상업 종사자 상황

지역	1933					1936				
	총세대수 (A)	상업자수(B)			A/B (%)	총세대수 (A)	상업자수(B)			A/B (%)
		도매	소매	소계			도매	소매	소계	
本町 1	104	14	74	88	84.6	137	9	77	106	77.3
本町 2	115	16	97	113	98.2	342	20	105	125	36.5
本町 3	324	10	90	100	30.8	316	5	91	96	30.3
南大門通 1	38	20	31	51	134.2	34	21	26	47	138.2
南大門通 2	39	25	17	42	107.7	40	30	25	55	137.5
南大門通 3	53	23	33	56	105.7	48	23	25	48	100.0
南大門通 4	20	26	31	57	285.0	21	39	37	76	361.9
南大門通 5	223	21	38	59	26.5	212	48	31	79	37.2
鍾路 1	85	12	34	46	54.1	82	10	49	59	72.0
鍾路 2	88	15	58	73	83.0	70	17	68	85	121.4
鍾路 3	259	7	45	52	20.1	252	15	93	108	42.9
鍾路 4	214	12	38	50	23.4	192	6	55	61	31.8
橋南洞	209	8	28	36	17.2	171	1	71	72	42.1

※ 京城商工會議所, 1933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215, 昭和 8년 11월, 39-40쪽 및 동 241, 昭和 11년 2월, 63-68쪽을 토대로 하여 작성.

※ 상업세대가 거주세대의 30% 이상인 町洞을 대상으로 함.

※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정 1-3정목 구간은 전체 거주 세대의 90-30%가 상업세대로 구성된 상업인구 밀집지역이었다. 그런데 본정 상가는 상점과 주택의 배치면에서 북촌과는 판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북촌 종로 상가는 애초 공랑(公廊)으로 설치된 상점들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원 건물은 헐리고 개축되었다 하더라도 상점의 대부분은 상업전용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선도로변 단층 건물

불허 조치와 관련하여 구 시전 행랑 건물이 대부분 개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936년 시점에도, 종로의 상점 중 주거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40%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본정 상점은 그 형성 당시부터 상인의 주거이자 상점으로 형성된 관계로 같은 시기에 90%가 주택비용의 상점이었다.<sup>66)</sup> 그렇다고 해서 본정 상인들의 주택/상점 소유율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90%의 주택/상점이 차가(借家)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정의 토지, 가옥은 대부분 서울에 일찍 정착한 일본인들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 세력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획득한 것이었다. 예컨대 1885년 입경자(入京者)의 한 사람으로 경성 상업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던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는 1926년 시점에서 현업에서 손을 떼고 본정통에 소유한 주택/점포의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었다.<sup>67)</sup> 1910년 이후, 본정상가가 기본 골격을 갖춘 이후에 본정에 들어온 상인들은 앞선 자들이 누린 일확천금의 행운을 함께 누릴 수는 없었다. 본정 일본인 상인의 성공담이 초기 이주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횡재수를 바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본정 상인들은 종로 상인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6년 시점에서 본정 상점의 60% 이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던 데 반해, 종로 상점은 36%만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 본정 상인들 중에는 도중에 일본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본정이 종로에 비해 어느만큼 안정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식민지 시기 본정 상인들은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버는 기회를 갖기도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종로 상인들처럼 끊임없는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지도 않았다. 1930년대 백화점이 압도적 자본력을 가지고 소매상가를 압박할 때에도, 그들은 전문점화를

66) 『京城商店街としての本町及鍾路通の概況』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242, 昭和11年3月, 39-42쪽.

67)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29쪽. 中村再造는 1924년 현재 경성 제2위의 개인 납세자였고 연간 수입은 75,000원이었다. 1위는 同順泰 주인인 중국인 澤傑生이었다. 『東亞日報』 1924. 7. 4 「戶別稅로 본 京城의 朝鮮人」

통해 위기를 그럭저럭 모면해 나갈 수 있었다.<sup>68)</sup> 본정 상인들이 상대적 안정을 누린 탓에 대를 이어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본정 상인 중 일부는 분명 이 땅에 영구적 기반을 마련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표 2> 본정, 종로 상점의 개업시기별 분포

개업시기 지역	1910 이전		1920 이전		1925 이전		1930 이전		1931 이후		계	
	상점수	%	상점수	%	상점수	%	상점수	%	상점수	%	상점수	%
本町	60	12.3	94	19.3	67	13.8	78	16.0	188	38.6	487	100.0
鍾路	22	4.1	37	6.8	48	8.9	88	16.2	347	64.0	542	100.0
계	82	8.0	131	12.7	115	11.2	168	16.3	535	52.0	1,029	100.0

※ 주65)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1936년 기준).

한편 한국 강점 이전에 서울에 들어와 거부(巨富)를 얻은 일부 상인들은 1910년 이후 조선식산은행 등의 국책회사에 주주(株主)로 참여하거나 따로 은행·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와다 도코이치(和田常市),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 쿠기모토 토오지로(釘本藤次郎), 야마구치 다이헤이에이(山口太兵衛) 등 경성상공회의소 의장, 평의원을 역임한 사람들은 대개 본정 상인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각종 은행·회사의 두취(頭取), 취체역(取締役), 감사역(監査役) 등을 지내면서도 좀처럼 본정의 자기 점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한 한 본정 상인과 종로 상인은 서로 닮아 있었다. 어찌면 식민지 시기 한인 자본가들의 회사 참여 행태가 본정 일본상인들의 회사 참여 행태를 그대로 본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본정에서 입신(立身)한 상인들에게 본정의 점포는 아마도 끝까지 지켜야 할 생(生)의 기둥과도 같

68) 1936년 京城商工會議所의 조사에 의하면, 그 무렵 本町 商街의 변화방향은 (1) 純商化의 경향, (2) 현대화 경향, (3) 집중화 경향, (4) 전문화 경향, (5) 위안화 경향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京城商工會議所, 앞의 책, 40쪽.



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연말이면 본정에서 일본식 가로축제를 열었고, 경성부는 기꺼이 공공 재원을 부담하여 축제비용에 보태었다.<sup>69)</sup> 본정 1정목에서는 상인과 은행·회사 임원, 요리점 주인이 함께 ‘번영회(繁榮會)’를 꾸렸고, 본정 2정목부터 5정목까지는 길가 점포주인들이 ‘번영회’ 회원이 되었다. 그들은 ‘번영회’를 통해 거리축제, 공동선전, 공동대매출 등의 행사를 열었을 뿐 아니라, 경성인쇄업조합, 경성백화점협회, 경성약업조합(京城藥業組合), 조선맹장회(朝鮮盟粧會), 경성완구상조합 등 경성은 물론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체를 본정통에 두고 조선 산업경제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본정에 가장 먼저 흘러 들어오는 최신 상품, 아직 어색하지만 점차 확산되어 가는 유행, 조선 속의 일본, 경성의 긴자(銀座)라는 명성이 모두 본정 상권의 압도적 우위를 뒷받침해 주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정이 지닌 진정한 자산은 본정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에도가와(江戸川)와 하나츠키(花月)에서 자연스럽게 총독부 관리들을 만났고, 경성부 관리들과 이웃에 살았으며, 식산은행·조선은행 임원들과 아침저녁으로 마주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경성의 긴자(銀座)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가 지속되는 한, 결코 지지 않는 태양이 될 수 있었다.

#### 4. 맺음말

식민지 시기 본정이 서울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이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우연적 계기에 의한 것이었다. 임오군인폭동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버린 후, 새 공사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자리잡았

69) 경성부는 1920년 이래 本町에서 개최되는 거리 축제에 매년 2,500円씩을 보조해 주었다. 『朝鮮日報』 1935. 11. 3 「旗旒代補助」

던 곳이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 몰려와 산 일본상인들은 불만스러운 채로나마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본정은 계획된 상가가 아니었고, 상가에 적합한 지역도 아니었다. 초기 일본 상인들은 끊임없이 종로나 남대문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했지만, 유리한 위치는 이미 청국 상인이 점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청국인보다는 일본인에게 훨씬 더 적대적이었다. 적어도 1894년 이전까지, 진고개는 서울에서 가장 웅색한 ‘상가’였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경제적 지배를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서울의 일본인들은 진고개를 벗어나는 대신에 그 곳을 중심 = 본정(本町)으로 만드는 쪽을 택하였다. 그들은 종로를 침공하는 대신 소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마포에서 서대문/칠패를 거쳐 종로로 이어지는 유통로는 용산에서 남대문을 거쳐 종로로 이어지는 유통로를 능가하고 있었다.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경인철도 경성정거장, 동대문과 마포의 전차 종점은 마포-서대문-종로-동대문 축선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종로는 일본 상인들을 막기 위한 거대한 해자(壕字)를 파고 있었던 셈이다. 진고개의 일본 상인들은 북진(北進)을 포기하고 남대문로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은 한국 및 청국과 맺은 거류지에 관한 약정을 묵살하고 진고개와 남대문로를 잇는 도로를 개수(改修)·개착(開鑿)하면서, 남대문로 방향으로 한걸음씩 다가섰다. 1897년 일본영사관·일본인 상업회의소·일본 거류민단 총대역소가 남대문로와 진고개의 접점으로 옮겨온 것은, 일본 상인의 남대문로 진출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본정의 중심성은 요지부동이 되었다.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은 바로 경성역이 되었고, 남대문통은 철도운송의 비약적 확대에 힘입어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남대문로와 본정이 만나는 곳에는 1907년부터 제일은행 경성지점/한국은행/조선은행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본정의 상징이 된 ‘센긴마에(鮮銀前) 광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 상가로 만듦으로써 엄청난 토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적수공권으로 서울에 들어온 사람들이 즐지에 갑부가 되었다. 1915년 시점에서, 서울 부자의 80%는 일본인들이었다.<sup>70)</sup> 이들의 부(富)는 다시 본정의 지위를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본정 상가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깨끗하게 치장되었다.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경성역으로 들어온 물화는 곧바로 본정 상점의 쇼윈도우 안에 자리잡았다. 본정 상인들은 조선인들에게 불친절하고 오만하며 무례했지만, 새로운 상품의 매력과 근대문화 = 일본 문화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대중적 동경(憧憬)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금씩 본정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갔다. 일본 유학생이 신지식인의 표상처럼 되면서, 일본식 정취에 대한 동경은 더욱 더 확대되었고, 그런만큼 본정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압도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1904년 이후 일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는 본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면 팔방으로 뻗어나갔다. 북쪽의 명치정과 황금정, 동쪽의 영락정과 초음정, 약초정, 앵정정(櫻井町), 신정(新町), 서쪽의 장곡천정(長谷川町), 남서쪽의 옥정(旭町), 남쪽의 일출정(日出町)과 남산정(南山町) 등이 모두 일본인들로 가득 찼다. 본정은 일본인 거류지의 확산방향을 따라 동쪽으로 확대되어 갔다. 본정 1-2정목에 국한되어 있던 상가는 3, 4, 5정목으로 뻗어나갔고, 구간별 특징을 명료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본정의 중심이던 1정목과 2정목에서는 정미소, 식료잡화점, 철물점, 건축자재상 등이 차츰 모습을 감추어 갔다. 1920년대에 본정 1정목에는 미쓰코시(三越), 미나카이(三中井), 히로다(平

70) 1915년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통합하면서 영업세 납부액을 회원자격으로 삼았는데, 당시 상업회의소 회원의 80%가 일본인이었다. 朝鮮總督府, 1916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正5年分, 181~182쪽.

田)의 3대 백화점이 자리잡았고, 이들 백화점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대형 건물을 경쟁적으로 신축하면서 본정 상가의 총아로 떠올랐다. 본정 2정목에는 의복상, 건직물상, 모직물상, 양화점, 화양잡화점, 화장품점 등이 주로 자리잡았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라디오, 사진기, 축음기상과 다방, 카페, 빵집 등이 늘어났다. 본정 3정목 이동(以東)으로는 식료품상, 전자재상 등 인근 일본인들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상점들이 들어섰다. 본정이 조선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3정목도 점차 2정목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본정은 종로와 달리 상가인 동시에 주거지였다. 상점과 주택을 병용하는 것은 다분히 일본적이지만, 일본인의 한국 거류과정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였다. 본정 거주 인구의 절대 다수는 상인들이었지만, 경성부 관사나 제일은행 사택도 본정에 있었고, 관공리는 물론 의사, 교수 등의 지식 권력집단도 본정에 살았다. 본정 상인들은 번영회나 무슨 조합이니, 상업회의소니 하여 자기들만의 이익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이웃의 관료나 은행원, 그밖의 전문가들과도 다분히 폐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힘입어 일본인은 물론 부유한 상층 조선인까지를 고객으로 끌어 들일 수 있었던 것이 본정 상가가 지닌 경쟁력의 핵심일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인적 관계망도 본정 상가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수백년 역사를 가진 종로 상인들이 파산과 몰락을 반복하면서 극심한 유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정 상인들은 오히려 대를 이어 영업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본정의 영화(榮華)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사라졌다. 본정 사람들이 사라졌고, 본정의 주고객이 사라졌으며, 본정의 상품이 사라졌다. 본정의 문화적 헤게모니도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본정의 찬연한 건물들조차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정은 부분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휴전 직후인 1955년, 총무로 1-4가

<표 3> 충무로의 상점 분포 상황(1955)

구역	상점분포상황	
충무로 1가	남	간판집(3), 꽃집(1), 다방(5), 당구장(1), 모자점(1), 목공소(1), 문방구(1), 미장원(1), 백화점(1), 세탁소(1), 시계귀금속상(1), 약기점(2), 약국(1), 양복점(2), 양장점(2), 양화점(2), 요리점(1), 은행(1), 음반상(5), 음식점(2), 전기기구상(1), 칠기상(1), 침구상(1), 탁구장(1), 학원(1), 상사회사(5), 미상(7)
	북	건축청부(1), 공업사(1), 교회(1), 다방(4), 미장원(1), 병원(4), 사진관(4), 세탁소(2), 수예점(1), 시계귀금속상(3), 안경점(1), 양화점(1), 우체국(1), 은행(2), 음반상(1), 이발관(1), 잡화점(3), 철물점(1), 파출소(1), 상사회사(5), 미상(9)
동 2가	남	공장(3), 다방(1), 단체(2), 대학(1), 모자점(1), 목공소(1), 미장원(1), 빵(1), 빵집(1), 수예점(1), 식당(1), 양복점(2), 양장점(2), 양화점(3), 음반상(2), 이발관(1), 잡화점(1), 전기기구상(1), 탁구장(1), 호텔(1), 상사회사(7), 미상(4)
	북	다방(4), 단체(3), 약국(1), 영화사(1), 유리점(1), 음반상(1), 인쇄소(1), 학원(1), 상사회사(3), 미상(2)
동 3가	남	건축청부(1), 공장(2), 단체(1), 병원(1), 복덕방(2), 여관(1), 예식장(1), 요리점(3), 잡화점(1), 학교(1), 호텔(1), 상사회사(5), 미상(2)
	북	다다미(1), 다방(1), 단체(1), 목재상(1), 병원(2), 서점(2), 요리점(2), 상사회사(4), 미상(3)
동 4가	남	공방(1), 꽃집(2), 다다미(1), 단체(1), 모자점(1), 미장원(1), 병원(5), 서점(1), 약품상(1), 양복점(1), 양장점(1), 양조장(1), 양화점(1), 요리점(1), 은행(1), 이발관(2), 인쇄소(1), 잡화점(6), 정육점(1), 종이상(1), 출판사(1), 학원(1), 상사회사(4), 미상(4)
	북	과자점(1), 교회(1), 극장(1), 다다미(1), 다방(2), 단체(3), 목욕탕(1), 문구점(1), 미장원(3), 병원(5), 보건소(1), 빵집(2), 사진관(1), 서점(1), 공설시장(1), 신문보급소(1), 신문사(1), 약국(4), 양복점(2), 양장점(1), 양품점(1), 요리점(1), 은행(1), 음식점(1), 잡화점(5), 출판사(1), 파출소(1), 상사회사(5), 미상(5)

※ 大韓案內社刊, 『서울商界略圖』, 1955를 토대로 작성.

구간에는 250여개의 점포가 새로 생겨났다. 이 무렵 서울 남촌 상가의 중심은 남대문로와 돈화문로 — 옛 약초정(若草町) — 로 옮겨가 있었지만, 충무로와 명동 — 옛 명치정 — 에도 많은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전 직후 충무로 1-2가에는 약기점, 음반상,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시계귀금속상, 사진관, 다방 등 옛 본정 시절과 대차 없는 상점들이 다수 들어섰다. 상점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본정 3대 백화점이 모두 자취를 감추었지만, 충무로 1-2가의 ‘장소성’은 살아 남았다. 충무로 4가도 적산가옥을 차지한 ‘새로운 시민’들을 배경으로 식민지 시기와 유사한 업종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충무로 3가가 극도로 피폐해진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전쟁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해방으로 인한 주변 인구 구성의 전면적 변동, 전쟁으로 인한 상가 자체의 초토화에도 불구하고 충무로는 본정을 닮으면서 소생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남촌에 상권을 빼앗긴 종로는 전쟁 직후 한때의 융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무로 1-2가의 상가는 이웃한 명동 상가와 일체화되면서 유행의 거리, 문화의 거리, 최고급의 거리가 되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이 본정에 새겨 놓은 ‘장소성’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토대를 잡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것이다.

<부표 1> 경성거주 일본인 호구수의 변화(1885-1916)

연도	호수	남	녀	계	호당 평균인구	전년비 호수증감	전년비 인구증감	호수 증가율	인구 증가율
1885	19	71	18	89	4.68				
1886	34	118	45	163	4.79	15	74	44.1%	45.4%
1887	65	170	65	235	3.62	31	72	47.7%	30.6%
1888	86	230	118	348	4.05	21	113	24.4%	32.5%
1889	130	354	173	527	4.05	44	179	33.8%	34.0%
1890	137	347	175	522	3.81	7	-5	5.1%	-1.0%
1891	157	435	263	698	4.45	20	176	12.7%	25.2%
1892	169	442	273	715	4.23	12	17	7.1%	2.4%
1893	234	454	325	779	3.33	65	64	27.8%	8.2%
1894	266	510	338	848	3.19	32	69	12.0%	8.1%
1895	500	1114	725	1839	3.68	234	991	46.8%	53.9%
1896	479	1019	730	1749	3.65	-21	-90	-4.4%	-5.1%
1897	471	871	717	1588	3.37	-8	-161	-1.7%	-10.1%
1898	480	946	788	1734	3.61	9	146	1.9%	8.4%
1899	525	1117	868	1985	3.78	45	251	8.6%	12.6%
1900	549	1157	950	2107	3.84	24	122	4.4%	5.8%
1901	639	1395	1095	2490	3.90	90	383	14.1%	15.4%
1902	795	1684	1350	3034	3.82	156	544	19.6%	17.9%
1903	934	2220	1645	3865	4.14	139	831	14.9%	21.5%
1904	1437	4166	2507	6673	4.64	503	2808	35.0%	42.1%
1905	2248	5170	4207	9377	4.17	811	2704	36.1%	28.8%
1906	3800	8023	6280	14303	3.76	1552	4926	40.8%	34.4%
1907	5220	10033	7988	18021	3.45	1420	3718	27.2%	20.6%
1908	8229	15399	12688	28087	3.41	3009	10066	36.6%	35.8%
1909	9952	22070	16753	38823	3.90	1723	10736	17.3%	27.7%
1910	12150	26216	20932	47148	3.88	2198	8325	18.1%	17.7%
1911	13458	25562	22064	47626	3.54	1308	478	9.7%	1.0%
1912	15753	32457	27495	59952	3.81	2295	12326	14.6%	20.6%
1913	17404	38408	32243	70651	4.06	1651	10699	9.5%	15.1%

연도	호수	남	녀	계	호당 평균인구	전년비 호수증감	전년비 인구증감	호수 증가율	인구 증가율
1914	16019	30472	28603	59075	3.69	-1385	-11576	-8.6%	-19.6%
1915	16933	32499	30415	62914	3.72	945	3031	5.6%	4.8%
1916	17699	34502	32528	67030	3.79	766	4116	4.3%	6.1%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월보> 23, 1918

각년 12월말 현재.

1903년부터는 용산 거주자를 합산한 수정치를 취함



<부표 2> 1894-1911년간 경성 거류 일본인 영업종별표

업종	1894	1905	증감	1909	증감	1911	증감
官吏			0	2134	2134	2134	0
商店員			0	1478	1478	1478	0
雇員			0	1269	1269	1269	0
下女			0		0	993	993
指物大工	8	123	115	971	848	971	0
會社員			0	739	739	739	0
諸傭人			0	683	683	683	0
諸職工			0		0	609	609
日雇稼		5	5		-5	496	496
藝妓		10	10		-10	474	474
雜業, 其他			0	456	456	466	10
雜貨商	61	120	59	383	263	383	0
田耕作			0	337	337	337	0
菓子商	8	23	15	325	302	325	0
土木建築請負業	1	1	0	321	320	321	0
小使給仕			0	294	294	294	0
諸勞動者			0		0	290	290
裁縫洗濯業	6	9	3	154	145	233	79
理髮職	8	16	8		-16	197	197
教員			0	182	182	182	0
看護婦			0	175	175	175	0
古物商	1	2	1	162	160	162	0
人力車業		13	13		-13	158	158
石工		2	2	140	138	140	0
魚類商			0	138	138	138	0
行商	16	81	65	137	56	137	0
佐官屋根職	3	17	14		-17	137	137
質屋 貸付業	8	24	16	127	103	127	0
飲食店	18	50	32	127	77	127	0
洋服店			0	116	116	116	0

업종	1894	1905	증감	1909	증감	1911	증감
運搬業問屋	1	6	5	110	104	110	0
仲居			0		0	108	108
靴職 및 履物商	1	1	0	100	99	100	0
電話交換手			0	94	94	94	0
印刷業, 彫刻業	3	5	2	83	78	83	0
醫師			0	81	81	81	0
旅宿, 下宿	3	8	5	81	73	81	0
金具鐵葉細工鍛冶職	6	12	6	76	64	76	0
建具製造業			0	74	74	74	0
料理師			0		0	71	71
料理屋	6	10	4	71	61	71	0
僧侶 및 宣教師			0	69	69	69	0
페인트칠			0		0	65	65
通信技術者			0	64	64	64	0
記者			0	63	63	63	0
下男			0		0	62	62
藥種賣藥請負商	7	15	8	62	47	62	0
疊職	1	2	1		-2	59	59
軍人, 軍屬			0	58	58	58	0
木挽		7	7	58	51	58	0
薪炭商			0	57	57	57	0
寫眞師	3	4	1	51	47	51	0
金物商			0	49	49	49	0
酒醬油味噌酢商		5	5	48	43	48	0
吳服太物商			0	47	47	47	0
牧畜牛乳牛肉業	2	9	7	46	37	46	0
灸術		1	1	45	44	45	0
遊藝稼業			0	44	44	44	0
時計師	3	5	2	44	39	44	0
女結髮			0		0	43	43
産婆			0	42	42	42	0
氷水, 飲料水		9	9	41	32	41	0

업종	1894	1905	증감	1909	증감	1911	증감
酌婦		47	47		-47	41	41
洋鐵工			0	35	35	35	0
材木商	2	3	1	33	30	33	0
鑛業			0	31	31	31	0
湯屋	2	7	5	31	24	31	0
書籍商		1	1	31	30	31	0
植木商			0	29	29	29	0
豆腐商	4	11	7	29	18	29	0
周旋業			0		0	27	27
穀物小賣商		2	2	27	25	27	0
驛夫			0	26	26	26	0
洋反物商 및 小間物商	18	12	-6	26	14	26	0
公吏			0	25	25	25	0
漁業			0	25	25	25	0
陶器商			0	25	25	25	0
表具師			0	35	35	25	-10
煙草製造販賣		3	3	25	22	25	0
代書人			0	24	24	24	0
土方業		5	5		-5	22	22
硝子商			0	20	20	20	0
辯護士 및 訴訟代理人			0	19	19	19	0
遊藝場業			0		0	19	19
蔬菜商			0	18	18	18	0
桶職		4	4	18	14	18	0
神官			0	14	14	14	0
測量師			0	14	14	14	0
貿易商	3	4	1	14	10	14	0
和洋家具商			0	13	13	13	0
繪畫師			0	13	13	13	0
酒類釀造業			0		0	13	13
果實商			0	12	12	12	0
提燈業			0		0	11	11

업종	1894	1905	증감	1909	증감	1911	증감
入齒師			0	10	10	10	0
自轉車業			0	10	10	10	0
打綿業			0		0	10	10
茶屋			0	9	9	9	0
獸醫			0	8	8	8	0
紙類商			0	8	8	8	0
瓦煉瓦職		1	1	8	7	8	0
藥劑師			0	6	6	6	0
貸本商			0	6	6	6	0
茶商			0	6	6	6	0
著述家			0	5	5	5	0
비누제조업			0	5	5	5	0
精米業			0		0	5	5
諸車製造業			0		0	5	5
製粉業			0	4	4	4	0
葬具販賣貸付業			0	4	4	4	0
石炭商			0	4	4	4	0
竹細工			0		0	4	4
機械商			0	3	3	3	0
銃砲火藥商			0	3	3	3	0
造花商			0	3	3	3	0
乘合馬車業			0		0	3	3
皮製造		1	1	3	2	3	0
刀劍業			0	2	2	2	0
시멘트상			0	2	2	2	0
券番			0	2	2	2	0
寄席			0	2	2	2	0
易術家			0		0	2	2
染物職	1	2	1		-2	2	2
機械製造業			0	1	1	1	0
團扇製造業			0	1	1	1	0
漁具商			0	1	1	1	0

업종	1894	1905	증감	1909	증감	1911	증감
醫療機械類 販賣			0	1	1	1	0
興行師			0		0	1	1
屠牛			0		0	1	1
石灰燒			0		0	1	1
清涼飲料製造			0	1	1	1	0
硝子製造業		1	1		-1	1	1
朝市	43	98	55		-98		0
銀行	1	2	1		-2		0
仲買商	2	7	5		-7		0
籠甲師	1	1	0		-1		0
大弓場		1	1		-1		0
합계	251	808	557	13236	12428	17245	4009

자료 : 경성거류민단역소, 1912 "경성발달사" 251-255쪽 및 430-435쪽.  
경성부, 1934 "경성부사" 3, 642-644쪽.

<부표 3> 본정 업소상황(1910)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본정 1정목	株式會社 百三十銀行 支店	菅原大太郎	은행업
	三井物産株式會社 京城支店	淺野長七	은행업
	奥田洋服店	奥田甚平	양복점
	本田洋服店	本田來作	양복점
	内田洋服店	内田道之助	양복점
	辻本商店	辻本嘉三郎	잡화상
	青木堂	久保田金次郎	잡화상
	篠崎商店	篠崎半助	잡화상
	平田商店	平田智惠人	잡화상
	今村商店	今村伊四郎	정미업
	山岸天祐堂	山岸祐太郎	약종상
	三巴酒店	堀尾潔	주류상
	北内商店	北内淺吉	지류상
	江里口商店	江里口和吉	지류상
	北村商店	磯部廣吉	양화점
大和軒	仙波야스	과자제조업	
平山牛乳店	平山政吉	우유상	
본정 2정목	佐野商店	佐野彦藏	철물상
	橋口商店	橋口卯作	철물상
	株式會社 三越吳服店 支店	柄澤正三	오복상
	惠坂吳服店	野野村勇次郎	오복상
	辻屋	松浦源治	잡화상
	高木商店	高木德彌	잡화상
	大石支店	大石末吉	잡화상
	鈴木商店	鈴木源藏	잡화상
	佐藤商店	佐藤牧太郎	잡화상
	陶榮商店	前田熊市	도기상
	荒木藥店	荒木武吉	약종상
	金光堂	喜多宗一	시계상
	小林時計鋪	小林金藏	시계상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日韓書房	森山美夫	서적문구상
	富田商店	富田音一	양화점
	三浦商店	三浦誠吉	양화점
	中村菓子店	中村하루	과자제조업
	別府組	別府爲五郎	인력거업
	夏川小間物店	夏川富三郎	양품점
본정 3정목	韓國銀行	市原盛宏	은행업
	松永商店	送永達次郎	무역상
	山口吳服店	山口太兵衛	오복상
	丸一吳服店	信澤定吉	오복상
	圓城吳服店	圓城安次郎	오복상
	森久商店	森久兵衛	잡화상
	明治屋 京城支店	三上林太郎	잡화상
	有田商店	有田長	잡화상
	田中商店	田中友吉	잡화상
	森安商店	森安吉	서양가구상
	増田商店	増田三穂	서양가구상
	田中兄弟時計商會	田中怡一郎	시계상
	林田商店	林田金次郎	석탄, 신탄상
	町田文林堂	町田文次郎	서적문구상
	平田商店	平田善太郎	서적문구상
	近藤骨董店	近藤佐五郎	골동품상
본정 4정목	廣池商店	廣池久太郎	무역상
	日韓貿易株式會社支店	早田文次郎	무역상
	末永吳服店	末永省二	오복상
	林吳服店	林茂一郎	오복상
	淀洋服店	淀虎藏	양복점
	龜屋	進辰馬	잡화상
	池田商店	池田長兵衛	잡화상
	藤田商店	藤田米三郎	잡화상
	岸商店	岸太兵衛	잡화상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前田商店	前田彌九郎	잡화상
	松屋商店	西元榮之助	잡화상
	田代商店	田代宗四郎	도기상
	近藤藥舖	近藤正廉	약종상
	贊化堂藥局	古城龜之助	약종상
	木島時計店	木島平兵衛	시계상
	織居時計店	織居嘉一	시계상
	久保田商店	久保田虎助	연초제조업
	清力商店 京城支店	服部暢	주류상
	前田商店	前田喜聰	주류상
	播摩屋	中村徳次郎	양화점
	眞島寒水堂	眞島品吉	과자제조업
	伊藤組	伊藤友松	인력거업
	河村百福號	河村辰三郎	양품점
	三田商店	三田政次郎	유리상
본정 5정목	關商店	關繁太郎	무역상
	釘本商店	釘本藤次郎	철물상
	山枝吳服店	岡本徳之助	오복상
	大上商店	大上友太郎	잡화상
	泉商店	泉由三郎	잡화상
	大塚商店	大塚覺藏	도기상
	河又藥局	河又隆太郎	약종상
	山本材木店	山本村太郎	재목상
	小林菓子店	小林牧	과자제조업
	岸川菓子店	岸川爲一	과자제조업
	早瀬組	深田彦藏	인력거업
	建部商店	建部喜三郎	양품점
본정 6정목	高迫商店	高迫角次郎	무역상
	西崎商店	西崎嘉七	잡화상
	岡野商店	岡野藤三郎	잡화상
	藤富國商店	藤富國太郎	잡화상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勢一商店	勢一助市	잡화상
	前川商店	前川正吉	잡화상
	大和商會	森田萬吉	인쇄업
	田中支店	三好喜六	주류상
	播本商店	播本恒次郎	지류상
	田村質店	田村義次郎	전당포
	小田商店	小田林三	유리상
	國崎商店	金崎仁三郎	건재상
	増戸商店	増戸勉一郎	총포화약상
본정 7정목	福田質店	福田松三郎	전당포
	松田質店	松田慶之助	전당포
본정 8정목	大橋商店	大橋清三郎	무역상
	古賀質店	古賀岩助	전당포

川端源太郎, 1910 "京城과 內地人" 日韓書房, 223-240쪽.

<부표 4> 본정 일대 주요 거주자와 영업실태(1926)

주소	성명	직업	업종
본정 1정목			
경성부관사	高橋源六	京城府 稅務課長	관공리
경성부관사	長尾仟	京城府 內務課長	관공리
7	北村三郎	但馬屋	여행구상
16	飯塚徹	飯塚齒科醫院長	병원
18	黒川宮作	黒川精肉店	정육점
18	山岸祐太郎	合資會社山岸天祐堂	약종상
18	宮本彦佐衛門	마쓰아吳服店	오복점
22	井原助太郎	井原 京城支店	철물점
22	鈴木寅吉	鈴木 京城支店	양품잡화상
23	港谷久市	미나토 帽子店	모자상
24	澁谷豊作	澁谷商店	사탕맥분상
26	橋口卯作	橋口金物店	철물점
27	伊藤스에	伊藤商店	신발상
28	內藤定一郎	大阪屋號書店 京城支店 支配人	서적상
30	城臺一六	江戸川	요리점
31	佐野彦藏		철물점
33	富澤周太郎		화장품, 잡화상
33	平井勝太	平井薰資堂	시계귀금속상
34	淺川富三郎	淺川畫額店	미술재료상
35	塚谷喜一	塚谷出張店	양품잡화상
40	松井定治	朝日堂	과자상
41	山口文吉	安田銀行 京城支店 部長	회사원
41	三原梓	安田銀行 京城支店長	회사원
44	藤井佐規		부동산임대업
45	中江富十郎	三中井吳服店 京城本店長	오복점
47	高木勇	合資會社 高木商店	시계귀금속상
47	高木德彌	高木商店	여행구잡화상
47	夏川富雄	夏川 京城支店	양품, 화장품상
47	眞鍋貞太郎	山玉號商店 代表社員	양말 메리아스상
47	衫本砂一	衫本耳鼻咽喉科醫院	병원
48	梅津末棹	樽元商行 主任	모피무역상
48	山本勝三	山本勝三商店	견면포상
48	越田彌三郎	越田 電氣商會	전기기구상
48	越田常太郎	株式會社橫山商店 專務取締役	서양기구상
48	江里口和吉	江里口文房具店	문구상
49	村松和久	精巧堂	인각업
49	櫻谷與作	사쿠라야 玩具店	완구점

주소	성명	직업	업종
50	守山安次郎	守山印房店	인각업
51	金田理一	千代田號印鋪	인각업
51	中村登代一	中村時計店	시계점
51	村上亥三郎	村上寫眞機店	사진기점
51	延命大外	北陸堂	원구상
51	篠崎半助	츠노사키 商店	문구상
51	本吉清一	本城屋	과자상
51	仙波潤一郎	大和軒	과자상
51	菅原篤三郎		대서업
본정 2정목			
1	堀内滿輔	치치부야	건축물상
2	一番刈瀬慶次郎	京城 皮膚泌尿器科醫院長	병원
2	山本總三郎	合資會社 杵屋號 代表社員	화장품, 양품상
2	平林健次郎	富屋洋品店	양품점
2	鈴木武司	京城組	인력거업
3	大綱直之	大綱吳服店	오복점
3	尾崎勝三郎	우사기 모스린店	양말 도소매
3	川井昌一	와라시마야 本店	원구도매상
3	信澤定吉	丸一吳服店	오복점
3	藤井宇太郎	宮川大學堂支店	안경구금속상
3	木下嘉助		약종상
8	進辰馬	龜屋	무역상
9	田中友吉	京取市場 仲買人	주식중매
9	植松實之助	植松商店	다방, 만년필상
10	八田貢	日韓書房 主任	서적상
11	中村再造		부동산임대업
11	山口新三郎	山口樂器店	악기점
11	山本正三	山本旅館	여관
12	池田長兵衛	本町 2丁目 郵便所長	관리
12	橋本키미	長門屋本店	유리기구상
13	町田吉太郎	町田商店 代表社員	측량기구상
14	柳田文治郎	群書堂書房	서적상
14	北村清太郎	清光園	요리점
15	久保田貞藏	久保田商店	도기상
16	大橋佐久	大橋商店	토산품상
16	古城梅溪	京城府協議會員	관공리
16	島崎昇		도기상
17	吉田規一	吉田洋服店	양복점
19	三田政治郎	三田政商店	판유리상

주소	성명	직업	업종
20	前田龜藏	前田合名會社 代表社員	주류상
21	川合治太郎	川合時計店	시계점
22	岩本庄吉		철기 도소매
23	椎木五郎	日之出商行	그림엽서상
25	増田利作	増田利作商店	지류상
26	綱島茂市	菊園茶鋪	다방
28	森政吉	朝鮮殖産銀行 理事	은행원
29	佐野末雄	釘本樂器部 支配人	악기점
30	大塚三四	大塚靴店	양화점
31	花本兵一	花本洋服店	양복점
32	友井福三	友井尙文堂 取締役社長	문구상
33	磯貝武次	富士屋時計店	시계점
33	梶原末太郎	梶原商店	무역상
34	窪田廉	窪田醫療器械鋪	의료기상
34	安田寬一	株式會社 平戶商店 京城支店長	무역상
36	大塚伊三郎	大塚樂器店	악기점
36	北島滿治郎	北島藥店	약종상
37	小守七藏	永田亭	과자상
39	岩見하루	岩見商店	유리, 스토브상
39	眞木仙次郎	大澤商會 京城支店長	무역상
39	藤川卯三郎	藤川商店	잡화상
39	小林勘次郎	小林吳服店	오복점
45	山田萬作	山田病院長	병원
45	佐久間新治	太平生命保險代理店	보험업
46	山本이츠	山本商店	주류상
47	高井貞治	高井醫院	병원
49	小野又四郎	一〇組 車帳場	인력거업
49	八木權十郎	八木權商店	양복잡화
51	平田智惠人	平田百貨店, 平田旅館	백화점, 여관
56	永井新之助		현옷상
58	釘本藤次郎	釘本藤次郎商店	철물점
59	森田久三郎	文光堂	서적상
60	中村義太郎		꽃집
62	津村精造	津村朝鮮館	토산품상
67	日田嘉市		토목건축청부업
69	浦尾키치	浦尾旅館	여관
70	鈴木茂	京城醫院長	병원
72	渡邊新太	渡邊生魚店	생선상
72	安武米吉	本町卍	빠
76	古城龜之助	古城贊化堂藥局	약종상

주소	성명	직업	업종
78	鷹取虎次郎		다다미 제조
80	廣岡胖	福助	신발상
81	神吉長作	다리아 喫茶店	다방
81	藏長太郎	石川物産商會	도기 칠기상
83	江頭運平	아와지야	현웃상
83	三浦伊三郎	松金	음식점
84	藤田米三郎		적운종말업, 신류잡화상
86	木島眞	木島時計店	시계점
88	村上幸次郎	村上寫眞館	사진관
93	松本卯一	巴城館	음식점
95	中尾啓一	松園	요리점
97	林田金次郎		무역상, 임대업
98	村木正藏	村木時計店	시계점
99	岩宮庄兵衛	株式會社海市商會 京城支店長	무역업
100	熊平源藏	熊平商店 社長	금고, 소방기구상
101	増田三穂		가구상
101	藤富國太郎	株式會社藤富商會 社長	식료잡화상
105	西川政吉	丸一商店 雜貨部	잡화상
106	森啓助	森啓商店	운동구, 도량형기상
107	淺海助太郎	森久本店	잡화상
108	田中三郎	田中時計店	시계점
109	齋藤繼述	京城憲兵分隊長	군인
110	岡田鬼太郎	喜久家	요리점
321	池尾好太郎	丸喜商會	신발제조판매
본정 3정목			
1	波多江千代藏	本町3丁目 郵便所長	관공리
1	岩野岩五郎	岩野吳服店	오복점
1	西村秀次郎	高砂餅	떡 제조판매
3	伊藤米松		정육점
3	河繁一	合資會社十字屋 業務執行社員	무역상
4	山口太助		정육점
5	森川米吉	森川食品店	식료품상
12	岩見寅次郎	岩見屋吳服店	오복점
12	曾我勉		토목건축청부업
13	高谷세키		전당포
20	安遠清太郎	시라기屋商店	오복점
21	齋藤嘉與次	京城勸農園	종묘상
23	田中嘉助		부동산임대업
23	逸藤福松	合名會社巴屋洋服店	양복점

주소	성명	직업	업종
23	森川定次郎	森川回天堂	약종상
24	加地藤次郎	加地時計店	시계점
30	浦轉金衛	長崎極樂寺頒藥所 朝鮮出張所長	약종상
30	宮本吉次	宮本千粒堂	약종상
31	三鍋才次郎	日本共立火災保險 京城出張所長	보험업
42	近藤安吉		철물점
43	橋詰庄太郎	橋詰吳服店	오복점
55	佐藤半次郎	佐藤金物店	철물점
60	川部幸一	川部米穀店	미곡상
61	檜崎猶右衛門	檜崎青山堂	만년필상
65	土井初太郎	土井松月堂	과자제조업
67	阿部悟	阿部藥房	약종상
73	稻葉金造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營業部長	회사원
73	大山慶治		부동산임대업
73	河島敏	大平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京城出張所長	회사원
78	有江繁太郎	有江洗濯店	세탁업
81	三好喜六	田中支店	양조장
81	望戶力一	望戶力一紙店	지류상
96	柴山岩吉	旭壽司	횃집
97	藤田熊吉	丸英吳服店	오복점
98	岡野淑子	岡野洋品店	양품점
99	下川益一	合資會社下川食品店	식료잡화상
102	永松喜久郎		모피 여행구상
102	青木卯助	青木衣服店	현옷상
분정 4정목			
10	岩見乙松		연, 포단 제조판매업
24	漆原録郎	朝鮮普成會社 支配人	회사원
24	漆原録郎의 妻	愛生醫院	병원
31	一色善太郎	一色醫院長	병원
36	木村眞三郎	기무라 藥房	약종상
55	安田益太郎	本町4丁目 郵便所長	관공리
56	佐野仁作	佐野精米所	정미소
78	野中齊之助	水下洞 公立普通學校長	관공리
79	植山仲次郎	三矢酢釀造會社 專務取締役	회사원
98	森下勤太郎	森下商店	식료잡화상
116	谷哲三	第一銀行 京城支店 支配人 代理	회사원
123	中村金藏	아사히야	이불상
125 제일은행사택	高畑新之助	第一銀行 京城支店 支配人 代理	회사원
125 제일은행사택	島原鐵三	第一銀行 京城支店 支配人	회사원

주소	성명	직업	업종
127	中原儀平		漁具商
131	谷岡貞七	谷岡商店 代表社員	인쇄업
133	小島光太郎		가구상
148	石橋滿	松永洋行	재목상
148	大塚藤吉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教授	관공리
148	三好守治	京城高等商業學校 教授	관공리
155	田代雄悅	田代醫院長	병원
166	吉川藤四郎	吉川金物店	철물점
본정 5정목			
18	濱井定	朝鮮商業銀行 本町 支店長	회사원
18	兼安麟太郎	京城高等商業學校 教授	관공리
18	久保薰一	大東社 社長	토목건축청부
25	德光美福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教授	관공리
25	大澤勝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教授	관공리
25	吉村偉秀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秘書役	회사원
25	上原直一		부동산임대업
25	小西英一	京城帝國大學 豫科教授	관공리
39	松下三雄	松下醫院長	병원
44	安培能成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教授	관공리
48	峯岸善太郎		부동산임대업
49	森登一		치과병원
52	森之	愛知産業會社 京城支店 支配人 代	회사원
55	宗像成一郎	宗像商會	무역업
59	田村作郎		매춘업
78	坂井清	坂井耳鼻咽喉科醫院長	병원
86	岡田眞	孝昌公立普通學校長	관공리
87	山邊曉之	京城帝國大學 豫科 教授	관공리

\* 中村實郎, 1926 "京城仁川職業名鑑" 東亞經濟時報社

<부표 5> 本町, 明治町 소재 영업자 연차별 표(1931, 1937)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1	본정 1-8	柳所名男治郎	서적 소매			
2	본정 1-16				合資會社滿鮮齒科商會*	치과외과기소매
3	본정 1-18	黒川憲作	수육도소매	黒川宮作	黒川精肉本店	수육도소매
4	본정 1-18	宮本彦左衛門	오복 소매	宮本彦左衛門	ますや呉服店	오복 소매
5	본정 1-18	岩谷祐造	화양장외소매	岩谷祐造	イワヤ洋品店	화양장외소매
6	본정 1-18			松野勝	金城堂書店	서적 소매
7	본정 1-18	合資會社セヤマ楽器店	악기 도소매		日本楽器株式會社京城出張所	악기 도소매
8	본정 1-18	佐佐木タシ	음식점	斯波靜香	本町果物店	과실 소매
9	본정 1-18			北澤千代藏	甘栗太郎	과실 소매
10	본정 1-18			木村重四郎	全鮮理髮士聯合會	산업단체
11	본정 1-18			黒川宮作	京城精肉商組合	산업단체
12	본정 1-18-5				合資會社秀秀刀物店	금물 소매
13	본정 1-20	飯泉俊清	화양장외소매	飯泉俊清	飯川ワイシャツ店	화양장외소매
14	본정 1-20			竹崎龜三郎	ミカワヤ帽子店	모자소매
15	본정 1-21			溢谷豊作*	溢谷商店	시탈소매
16	본정 1-21			山口清一	アサヒ藥器店	죽용기레코드상
17	본정 1-22	鈴木寅吉	화양장외소매	鈴木寅吉	合資會社鈴木洋品店	화양장외 소매
18	본정 1-22	溢谷豊作	시탈소매			
19	본정 1-23	井原助太郎*	금물 도매	夏川富雄	夏川京城支店	일용 도매
20	본정 1-24	溢谷豊作*	시탈소매	溢谷豊作*	溢谷豊作*	시탈소매
21	상동			宮崎峯子	本町一丁目紫髮會	산업단체
22	본정 1-25	岡崎謙天	일본신발 소매	宮崎峯子	東京屋	일본신발 소매
23	본정 1-26	橋口卯作	금물 도매		株式會社橋口金物店	금물 도매
24	본정 1-27	伊藤乙彦	일본신발 도매	伊藤乙彦	合名會社伊藤乙彦本店	일본신발 도매
25	본정 1-28	夏川富雄	일용품			
26	본정 1-28-1	内藤定一郎*	서적 도매	内藤定一郎*	合名會社京城大原屋號書店	서적 도매
27	상동			内藤定一郎*	朝鮮書籍商組合	산업단체
28	상동			内藤定一郎*	朝鮮雜誌販賣組合	산업단체
30	본정 1-28-2	株式會社明治屋京城支店	양식료품 도매		株式會社明治屋京城支店	양식료품 도매
31	본정 1-29			城台一六	江戸川	일본요리
32	본정 1-30	城臺一六	일본요리			
33	본정 1-31	佐野彦藏	금물 도매	佐野彦藏	佐野彦商店	금물 도매
34	본정 1-32				株式會社鐵紡サービスステーション京城支店	건포 도매
35	본정 1-32				合資會社井原商店	건축금물소매
36	본정 1-33				株式會社七號無線電氣商會京城出張所	라디오 도매
37	본정 1-34	神保林造	역자 소매	神保林造	淺川號商店	역자 소매
38	본정 1-35	塚谷豊一	화양장외소매	米澤榮吉	高正堂	민년필 소매
39	본정 1-36	高木徳彌	여행구도매	高木徳彌	高木靴店	여행구도매
40	본정 1-37			西田三治	二鶴	오명
42	본정 1-39	株式會社大澤商會支店	시계귀금속도매			
43	본정 1-40	松井定治*	과자소매	神吉長作	ダリヤ	과자소매
44	본정 1-40	中江和平治	일용품			
45	본정 1-40	水波ヤエ	양식, 카페	川上ハツ*	銀水	카페
46	본정 1-41	株式會社安田銀行支店	은행업			
47	본정 1-42	中江和平治	소간물 도매	中江和平治	日の丸小間物店	소간물 도매
48	본정 1-45	株式會社三中井吳服店	백화점		株式會社三中井吳服店	백화점
49	상동			飯田恵	三中并食堂	식당
50	본정 1-47	山玉號合資會社	화양장외소매			
51	본정 1-47	眞鍋聖太郎	죽나 도매			
52	본정 1-47	合資會社高木商店	시계귀금속소매	大藤男	日本堂	시계 소매
53	본정 1-47			嶋本善男	夏川茶舖	다류 소매
54	본정 1-47	北村三郎	여행구도매	北村三郎	但馬屋	여행구도매
55	본정 1-48			藤野敏夫	京城運動具商會	운동구 도매
56	본정 1-48	大塚三四	양화제조			
57	본정 1-48	橋元了サ	모피소매	橋元了サ	橋元洋行	모피소매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58	본정 1-48	株式會社橫山商店	의양가구 제조		株式會社橫山商店	심내장식
59	본정 1-48	森田久三郎	서적 소매	森田久三郎	文光堂	고서 소매
60	본정 1-48	越田彌三郎*	전기공사 정부	越田彌三郎*	越田電氣會	전기공사 정부
61	본정 1-49	岡重富	과자소매			
62	본정 1-49					
63	본정 1-49	山内大條	의양잡의도매	山内大條*	ひらぎや	의양잡의도매
64	상동			山内大條*	京城和洋雜貨商組合	산업단체
65	본정 1-49	松田マシヨ	음식점	彌之鼻セイ	太陽軒	카페
66	본정 1-49	櫻谷興作	완구 도소매			
67	본정 1-49-10	多治比イチ	일본신발 도매	多治比イチ	べら安履物店	일본신발 도매
68	본정 1-50	重藤滿吉	미곡소매	重藤光三	重高店	미곡소매
69	본정 1-50			藤川清八	藤川金屬細工店	금은세공
70	본정 1-50			川島長五郎		건축정부
71	본정 1-50			松永大吉	ニコニコ食堂本店	식당
72	본정 1-51	播本恒松	점주소매			
73	본정 1-51	本吉清一	과자제조	本吉兵次郎	本城屋	과자제조
74	본정 1-51	仙波彌一郎	과자제조	橋松實之助	大和軒	과자제조
75	본정 1-51	岡本三郎*	수예재료 소매	岡本三郎*	岡本手藝店	수예재료 소매
76	상동			岡本三郎*	京城雜物商組合	산업단체
77	본정 1-51	浦尾房一	의양잡의소매	浦尾房一	浦尾洋品店	의양잡의소매
78	본정 1-51	中村榮一	시계귀금속도매	中村榮一	中村眼鏡店	안경 도매
79	본정 1-51	合名會社北内商店	문방구 도매		合名會社北内商店	문방구 도매
80	본정 1-51	篠崎半助	문방구 도매	篠崎半助*	シノサキ	문방구 도매
81	상동			篠崎半助*	京城紙文房具商組合	산업단체
82	본정 1-51			江頭貞雄	お仙	요양
83	본정 1-51	延命大外	완구 도소매	延命大外	北陸堂	완구 도소매
84	본정 1-51	株式會社平田百貨商店	백화점		株式會社平田百貨商店	백화점
85	본정 1-51	山口瀧助	인쇄	山口瀧助	山口印刷所	인쇄
86	본정 1-51	金田理一	인장 소매	金田理一*	子代田號	인장 제작
87	상동			金田理一*	京城印刷業組合	산업단체
88	본정 1-51-7				合資會社山岸天祐堂	양종 도매
89	본정 1-52	株式會社三越支店*	백화점		株式會社三越支店*	백화점
90	본정 1-52상림			三輪邦太郎	京城百貨店協會	산업단체
91	본정 1-52상림			田中ナヲ		가발정부
92	본정 1-53	岡田鬼太郎	토목건축정부		株式會社朝鮮貯蓄銀行	은행
93	본정 1-53	木本實松	토목건축정부		神戸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京城支店	보험업
94	본정 1-53	岡田七草*	일부요리		株式會社ゴア, グラン	서양요리
95	본정 1-53	永田久治*	초밥		朝鮮無煙炭株式會社	경연
96	본정 1-53옥림			小林勇二		수도용구도매
97	본정 1 아라포			淺野正之助	京城藥業組合	산업단체
98	본정 1 아라포			古城龜之助	京城藥種卸商組合	산업단체
99	본정 2-1	合資會社富三屋商店	모자소매	岩谷寛男		의양잡의 소매
100	본정 2-1	椎木四郎*	그림 도매	香月五郎	三吉支店	넥타이 도매
101	본정 2-1	堀内滿輔*	오목 도소매	堀内滿輔*	ちちぶや	오목 도소매
102	상동			堀内滿輔*	本町二丁目西部繁榮會	산업단체
103	본정 2-2			海外拓殖株式會社京城販賣所	精肉舍	축육
104	본정 2-2	土橋珍松	시계귀금속소매	庄司清五郎	庄司運動具商店	운동구 소매
105	본정 2-2	岡井芳馬	소간물 소매	永田久治*	壽司久	초밥
106	본정 2-2	山本徳三郎	양용점	山本徳三郎		양용점
107	상동			山本徳三郎	朝鮮製鞋會	산업단체
108	본정 2-2	古澤榮之助	조와 제조	古澤榮之助	むすめや	조와 제조
109	본정 2-2	合資會社安田商店	다다미 제조			
110	본정 2-2	鈴木武司	인력거업			
111	본정 2-3	信澤定吉	오목 소매			
112	본정 2-3	佐伯實太郎	의양가구 제조	佐伯實太郎	佐伯家具店	의양가구 제조
113	본정 2-3	玉井運平	보모구 소매			
114	본정 2-3	式見小三郎	양종소매			
115	본정 2-3	富川大吉	안경 도매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116	본정 2-3	合資會社ウラシマヤ本店	연구 도매	川井昌一*	ウラシマヤ	연구 도매
117	상동			川井昌一*	京城玩具商組合	상업단체
118	본정 2-3	朝子すへの	일본요리	朝子すへの	熊京	일본요리
119	본정 2-3	谷垣義彦	양식, 카페			
120	본정 2-3	近藤修	음식점			
121	본정 2-3	高田九一*	콜크 제품			
122	본정 2-3-8				丸善株式會社京城支店	서적 소매
123	본정 2-7	高田九一	유리제품 도매	高田九一	高田コルク製作所	콜크제품
125	본정 2-8	蓮辰馬	식량양파도매	蓮辰馬	龜屋	양식료품 도매
126	본정 2-8			斎水源太郎	斎永印刷所	인쇄
127	본정 2-8			山下龜太郎	本町タクシー	택시
128	본정 2-10	坂本眞一	경매			
129	본정 2-10	岸本眞次郎*	서적 소매		合資會社日韓書房	서적 소매
130	본정 2-11			伊藤冬子	サッポロロービヤホル	미아음
131	본정 2-11	山本正三	여관	山本正三	山本旅館	여관
132	본정 2-11	内山寛正	악기 도소매	内山寛正*	山口樂器店	악기 도소매
134	본정 2-12			渡部久吉	渡邊本町販賣店	양파제조
135	본정 2-12	清田眞一郎	철기 소매			
136	본정 2-12	津留崎一	인상제재도매		合資會社養生堂	약종 소매
137	본정 2-12			清田眞一郎	琉球屋	오복 소매
138	본정 2-12	文清淵*	편유리 소매		陽光堂合資會社	약종 도매
139	본정 2-14	島崎シゲ	도자기 소매			
140	본정 2-14	柳田文次郎	서적 소매			
141	본정 2-14	北村清太郎	일본요리	北村清太郎	清香園, 白雲荘	일본요리
142	본정 2-15	久保田敏藏	도자기 소매	久保田勝司	久保田陶器店	도자기 소매
143	본정 2-16			野村益治	京城陶器商會	도자기 도매
144	본정 2-17	福岡虎雄	식량양파도매	砂本眞市*	スナモト商店	심내장식
145	본정 2-17	吉田友二	양복제조			
146	본정 2-17	長瀬福太郎*	양복제조	長瀬福太郎*		양복제조
147	상동			長瀬福太郎*	京城靴高親和會	상업단체
148	상동			長瀬福太郎*	京城靴高組合	상업단체
149	본정 2-18	伊藤東作*	악기 도소매			
150	본정 2-19	三田正一	유리제품 도매	三田昌夫	三田政商店	편유리 도매
151	본정 2-20	株式會社前田商店	정수도소매	合資會社不二商會	ダイル不二商會	양식료품 도매
152	본정 2-20				株式會社大澤商會京城支店	시계 도매
153	본정 2-21	山本卯一郎	악양가구 제조	山本卯一郎*	山本家具店	가구제조
154	본정 2-22	岩本弘二	철기 소매	高瀬繁	ダカラ屋洋品店	악양가구 소매
155	본정 2-23			椎木四郎*	日之出商行	그림엽서 도매
156	본정 2-24			中川すぎ	久利屋	과실 소매
157	본정 2-25	株式會社朝鮮三共組	약종 도매			
158	본정 2-25	嶋田利作	문방구 도매	岩田虎吉	岩田鶴鶴店	제과
159	본정 2-26			西崎格		악양가구 소매
160	본정 2-26				合資會社井上屋物店	일본신발 소매
161	본정 2-27	前川隆三	과지제조		合名會社橋屋	과지제조
163	본정 2-27	井上宗次郎	철기 도매			
164	본정 2-27	新澤繁堂	약종소매	新澤繁堂	養生堂藥房	약종소매
165	본정 2-28	森政吉	직류류 도소매	森政吉	森政吉商店	직류류 도소매
167	본정 2-29	佐藤小房	악양가구도매	佐藤良一	繩屋鼓藏所	부인복
168	본정 2-30	佐野常雄	악기 도소매		日本ポリドール販賣株式會社朝鮮支店	축음기레코딩상
169	본정 2-30			金子甲作	金子齋店	서적 소매
170	본정 2-31	合資會社花本洋服店	양복제조	入船清三郎	ラヂオ陳列館	라디오 도매
171	본정 2-31				地球鉛筆朝鮮販賣株式會社	연필도매
172	본정 2-32	株式會社友井尚文堂	문방구 도매		株式會社友井尚文堂	문방구 도매
173	본정 2-33	職員武次	시계귀금속소매			
174	본정 2-33	高瀬優	서적 소매	原岩太	神戶屋	제빵
175	본정 2-34	株式會社平戸商店支店	모직물 도매	株式會社平戸商店支店		모직물 도매
176	본정 2-34	株式會社いwashya器械店	외포기계 도매		株式會社いwashya器械店	외포기계 도매
177	본정 2-34	赤松文吉	토목건축정부	赤松文吉		토목건축정부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178	본정 2-34					
179	본정 2-35	秋田武治	족내 소매		京城醫料理化學機械商組合	산업단체
180	본정 2-35	岩田虎吉	양외 제조			
181	본정 2-35			河北好藏	岩見硝子店	도료 소매
182	본정 2-36	大塚伊三郎	도자기 도매	長尾謙治	長尾勉旅行具店	여행구 소매
183	본정 2-36	株式會社北島藥房	약중도매		株式會社北島藥房	약중도매
184	본정 2-37	末重種	염색	末重種	みの今泉服店	오복 소매
185	본정 2-37			芳賀友三郎		과자소매
186	본정 2-38	西村秀次郎	과자제조	西村正雄	高砂	떡 제조
187	본정 2-38	三浦伊三郎	일본요리	三浦典次	松金	일본요리
188	본정 2-39	小林勘次郎	오복 소매	小林勘次郎*	小林吳服店	오복 소매
189	상동			小林勘次郎*	本町二丁目繁榮會	산업단체
190	본정 2-39	藤川卯三郎	여행구도매	岡村松之助	岡村京城支店	예대 도매
191	본정 2-39	大塚重治	인쇄	齋藤三郎	齋藤小間物店	양공 소매
192	본정 2-39	高橋シウ	양식, 카페	カフエーキリン	カフエーキリン	양식, 카페
193	본정 2-39			秋田武治	團華足袋出張所	족내 도매
194	본정 2-39				合資會社宮川大學堂	안경 도매
195	본정 2-39			中塚ソユン	カフエーヌマツ	카페
196	본정 2-40			井上エミ	アロマ	비
197	본정 2-45	石井呉一	도장 정부	石井呉一		도장 정부
198	본정 2-46	河野多一	청주도소매		合資會社山本商店	청주 도소매
199	본정 2-49			森川一校	森川賣館店	시계 소매
200	본정 2-49	小野又四郎	인력거업	小野又四郎	一〇組支店	인력거업
201	본정 2-50	木佐新藏	완구 소매	木佐新藏	地球堂	완구 소매
202	본정 2-52			大綱直之	大綱出張店	오복 소매
203	본정 2-56			岡敬治*	岡洋服店	양복제조
204	본정 2-58	釘本藤次郎	금줄 도매	釘本一男	釘本商店	금줄 도매
205	본정 2-59	合資會社大屋商店	기성복 소매	永樂佐四郎	ナカ工	기성복과 소매
206	본정 2-59	安原照三郎	인상제세제초			
207	본정 2-59	中島徳義	인쇄	中島徳義	天寶堂	인장 제작
208	본정 2-59	飯尾耕平	고서적 소매	飯尾耕平	至誠堂	고서적 소매
209	본정 2-60			中村義太郎	中村花圃	과초 소매
210	본정 2-61			前川猛郎	ミツ和屋	오복 소매
211	본정 2-62	合資會社朝鮮館*	토산품 도매		合資會社第一朝鮮館*	토산품 도매
214	본정 2-64	灰田大吉	미국소매	森本伊之助		금융업
215	본정 2-66	日田孝雄	토목건축정부		合資會社宮川工務店	토목건축정부
216	본정 2-67	日田薫市	토목건축정부			
217	본정 2-69	浦尾金一	여권	浦尾金一	浦尾旅館	여숙업
218	본정 2-71	安武キク	양식, 카페			
219	본정 2-72	濱邊新大	생선상	濱邊新大		생선상
220	본정 2-72	安武キク			本町バー	카페
221	본정 2-73			阿津坂義太郎	阿津坂商店	금융 소매
222	본정 2-74			磯野氏 高	巴帽子店	모자소매
223	본정 2-75	合資會社日華堂時計店	시계귀금속소매	松井正光	博多屋	오복 소매
224	본정 2-75			竹下密三郎	竹下硝子店	모자소매
225	본정 2-76	古城龜之助	약중소매	古城龜之助*	贊化堂	약중소매
226	상동			古城龜之助*	京城藥品組合	산업단체
227	본정 2-77			柳美登	ヤナギーカフエ	카페
228	본정 2-78	鷹取虎次郎	다다이 제조	鷹取虎一		다다이 제조
229	본정 2-80	あさひ合資會社	외양갑과소매	山口イマ	やぶぞば	소바
230	본정 2-81	藏長太郎	침기 소매	藏長太郎	石川物産商會	도자기 소매
231	본정 2-82	大橋寅吉	불교 도구 소매	山口淺次郎	大橋佛具店	불교도구 소매
232	본정 2-82	神吉長作	과자 소매			
233	본정 2-82	阿比留ヨシ	일본요리	内田龜十郎	花月	일본요리
234	본정 2-83	江頭運平	일본기성복도매	江頭運平	あわじや	일본기성복도매
235	본정 2-84	藤田米三郎	식량잡곡도매	藤田米三郎	藤田米三郎商店	식량잡곡도매
236	본정 2-85	北村隆之助*	모지 제조			
239	본정 2-86	木島眞	시계귀금속소매			
240	본정 2-86	富田徹三	토산품 도매	富田徹三	富田出張店	토산품 도매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243	본정 2-90	宮野博	양복제조	宮野博	ミヤノ	양복제조
244	본정 2-90	倉田敏助	어류 소매	伊藤鎌太郎	ツルヤ	도자기 소매
245	본정 2-90	山科八重子	양식, 카페	山科八重子	ホアイトランチ	양식, 카페
246	본정 2-90			小林良輔*	小林靴店	양화제조
247	본정 2-90				鍊器販賣株式会社京城販賣所	계산용구 소매
248	본정 2-91			安昌徳*	文明堂書店	고서 소매
249	본정 2-92	明治製菓株式会社京城販賣所	과자도매	長瀬彌太郎*	武蔵屋	양화제조
250	본정 2-93	望月よしる	일본요리	平田リヨ	支那	일본요리
251	본정 2-94	中村十郎	금융업	中村孝		금융업
252	본정 2-95	實生堂朝鮮販賣株式会社	외국음도매			
253	본정 2-95	中尾啓一	일본요리	中尾啓一	松置莊	일본요리
254	본정 2-96			北村隆之助*	キタムラ	모자소매
255	본정 2-98	江波宅治	오복 소매			
256	본정 2-98	村木正藏	시계귀금속도매	村木正藏	株式會社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시계귀금속도매
257	본정 2-99	株式會社濟市商店支會	토산품 도매	岩宮庄兵衛	濟市商會	토산품 도매
258	본정 2-100	株式會社那平商店	금고 제작		株式會社那平商店	금고 제작
259	본정 2-100			京城工地理物會實業社	京城ホテル	여숙업
260	본정 2-101	増田三穂	외양기구 소매			
261	본정 2-102					
262	본정 2-105	西川政七	외양장외소매	西川政七	マツヤ商店	외양장외소매
263	본정 2-106					
264	본정 2-106	森啓助	운동구 도소매	森久兵衛	カドヤ運動具店	운동구 소매
265	본정 2-107	安永正太郎	이동복 제조	寺村定	勉強堂書店	고서 소매
266	본정 2-107	田中三郎	시계귀금속도매	田中三郎	田中時計店	시계귀금속도매
267	상동			田中三郎*	京城時計黄金履商工組合	산업단체
268	본정 2-107	松枝房次郎	외양장외소매	鈴木作次		외양기 소매
271	본정 2-110			藤下重次		토목건축정부
272	본정 2-110			岡田七草*	喜久家	일본요리
274	본정 2-209				株式會社杵屋號	외장품 도매
275	본정 3-1			栗田面次郎	下川支店	장이찌 소매
276	본정 3-2			花木定	石川表具店	표구정부
277	본정 3-2			森元森治*		용달
278	본정 3-3	伊藤米松	수육소매	伊藤米松	久久精肉店	수육소매
279	본정 3-3	吉室益太郎	외양장외도매			
280	본정 3-3	石川辰次郎*	표구재료 도매			
281	본정 3-5	岡敬治*	양복제조	林興玉*	兄弟生花園	외조소매
282	본정 3-6			川崎忠雄	はりまや	식당
283	본정 3-12	岩見寅次郎	오복 소매	青山重吉	青山鞋店	모자 도매
284	본정 3-12	實島ヒサ	여관		株式會社北島北正堂通信部	위생재료소매
285	본정 3-12			辻達造	旭旅館	여숙업
286	본정 3-13			村島善之助		역사정부
287	본정 3-13			岡本三郎*		토목건축정부
288	본정 3-16			森ヨツ	京城會館	카페
289	본정 3-18	京城商事株式会社	가마니 도매			
290	본정 3-21	合資會社新光靴店	서적 소매	松島孝	松島靴店	여행구 제작
291	본정 3-21			松永豊松	たる	식당
292	본정 3-22			佐藤ハツ	シキシア食堂	카페
293	본정 3-23	淺沼良吉	양복제조	淺沼良吉	巴厘洋服店	양복제조
294	본정 3-24	合資會社近藤ラヂオ商會	라디오 소매	近藤彌太郎	近藤ラヂオ商會	라디오 소매
295	본정 3-25	株式會社森川回天堂*	양종도매		株式會社森川回天堂*	양종도매
296	본정 3-28			平山正則	京城不動産紹介組合	산업단체
297	본정 3-30	森元森治*	문방구 도매	朴光殷*	日之出自轉車店	시정기 소매
298	본정 3-30	伊豆小太郎	도장 정부	伊豆小太郎	天壽堂	도장 정부
299	본정 3-30	宮本吉次	양종소매	宮本吉次	宮本千乾堂	양종소매
300	본정 3-30	秋葉仙之助*	금융업	秋葉仙之助*	田村質店	전달포
301	본정 3-30	植木覺次郎	양식, 카페	植木覺治郎	カフエー白蝶	카페
302	본정 3-30			豆塚靜子	カフエー灣ツバメ	카페
303	본정 3-30			橋詰庄太郎	京城吳服商組合	산업단체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304	본정 3-30-6				山岡無線電氣株式會社京城出張所	라디오 도매
305	본정 3-33	近藤安吉	금융 도매	近藤安吉	近藤安吉商店	금융 도매
306	본정 3-33	井上謙三郎	도장 정부			
307	본정 3-34			永岡明	セーラ-萬年筆坂田製作所朝鮮出張所	인년필 도매
308	본정 3-36			西崎廣太郎	西崎商店	양복제조
309	본정 3-38	下川傳治	식량장외 소매	宮谷松太郎	藤川魚店	생선소매
310	본정 3-38	森野勲治	양식, 카페	松井明	明松堂雜貨店	외교기 도매
311	본정 3-39	日本共支火災保險株式會社出張所	보험업		株式會社佐佐木商會	전기기구소매
312	본정 3-40	山口大助	수육소매	山口大助	山口精肉店	수육소매
313	본정 3-42	多治比貞助	일본신발 도매	多治比貞助	奥屋履物店	일본신발 도매
314	본정 3-42	仲谷右平次	금융 소매	仲谷右平次	中谷金物店	금융 소매
315	본정 3-42			佐藤增市	福山堂支店	과자소매
316	본정 3-42			多治比貞助	京城履物高組合	신발단체
317	본정 3-43	橋詰庄太郎	육류 소매	橋詰庄太郎*	橋詰吳服店	오복 소매
318	본정 3-43			橋詰庄太郎*	本町三丁目繁榮會	신발단체
319	본정 3-55	佐藤半次郎	금융 도매	佐藤半次郎	佐藤半次郎商店	금융 도매
321	본정 3-60	川部幸一	식량잡외소매		合資會社大山商店	식료잡외 소매
322	본정 3-64			三原庄太郎	三原商店	식풍기공
323	본정 3-64			西村政二郎	まるや衣服店	전통의상 소매
324	본정 3-67	阿部徳	의종소매			
326	본정 3-81	望戸カ-	종이 도매	丸井林作	加藤衣服店	전통의상 소매
327	본정 3-81	仲川龍治郎	과실 소매	仲川龍治郎	仲川甘菓店	과실 소매
328	본정 3-84	村岡國助	금융 소매		村岡國助	금융 소매
329	본정 3-86			磯貝兼一		금융 소매
330	본정 3-86			島津芳太郎*	平島商店	지압 제작
331	상등			島津芳太郎*	京城紙面同業組合	신발단체
332	본정 3-86			横井卯之助	芦舟堂	표구 정부
335	본정 3-92	田中イワノ	여관			
336	본정 3-93			分島周次郎		대려포단 대부
337	본정 3-94			新村ハル子	銀鈴	카페
338	본정 3-97	藤田雄吉	오복 소매	藤田雄吉	丸英吳服店	오복 소매
339	본정 3-98	今城清男	식량잡외소매			
340	본정 3-98	合資會社岡野洋品店	의양잡외도매		合資會社天龍洋行	의양잡외 소매
341	본정 3-99	北村茂三郎	과자제조	北村茂三郎	福山堂卸部	과자제조
342	본정 3-99				合資會社今城食品店	식료잡외 소매
343	본정 3-100				萬有製藥株式會社京城出張所	약종 도매
344	본정 3-101	合資會社藤富商會	일용잡외소매	梶原藤造	藤富商會	일용잡외소매
345	본정 3-102	赤塚耕三郎	오복 소매			
346	본정 3-102	土出松右衛門	일본악기 소매	土出松右衛門	土出松音堂	일본악기 소매
347	본정 4-1	佐野音次郎	영색정부	佐野音次郎	さのや吳服染染店	오복 소매
348	본정 4-1					
349	본정 4-7	迫田英之助	양복제조	迫田英之助	迫田商店	양복제조
350	본정 4-7	岩見乙松	재면			
351	본정 4-8			深邊タケ	千福會館	카페
352	본정 4-10	岩見乙松	재면	岩見ヨシノ		
353	본정 4-15	合資會社深邊工務所出張所	토목건축정부			
354	본정 4-15	廣瀬廣太郎	전당포	廣瀬廣太郎	廣瀬質店	전당포
355	본정 4-15	合資會社江波組	토목건축정부	廣田常藏		
357	본정 4-22			金壽山*	金山商店	머크소매
358	본정 4-22			柴田三郎	柴田食料品店	식료잡외 소매
359	본정 4-23	柴田佐逸	모시 소매			
360	본정 4-29			下村昭仁	シンガ-ミンン本町商店	재봉틀 소매
361	본정 4-30			丸山岩太		신탄 소매
362	본정 4-30	井科紋次郎	전기기구 도매	井科紋次郎	京城ラヂオ商會	라디오 도매
363	본정 4-31			鳥原定一	京城庵本店	소반
364	본정 4-32				合資會社川上生花園	와초 소매
365	본정 4-33	小島光太郎	의양기구 제조		合資會社壽本印刷所	인쇄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366	본정 4-35	西松實次	금물 소매			
367	본정 4-35	中村力造	오복 소매			
368	본정 4-36	竹内興作	금융업	竹内興作	竹内興店	금융업
369	본정 4-36			月峯作市	月峯吳服店	오복 소매
370	본정 4-47			西井由造	富味堂	과자소매
371	본정 4-48	伊勢田明一	문방구 소매			
372	본정 4-48	手坂末次	양피제조			
373	본정 4-48	松尾保二郎	문방구 도매			
374	본정 4-56	佐野仁作	머크소매	佐野仁作	佐野屋	머크소매
375	본정 4-56			細川寛幸	細川金物店	금물 소매
376	본정 4-60	田村作郎	백악점	橋本保吉	三葉屋	화양집의 소매
377	본정 4-62			上條桂次郎	白牡丹	과자소매
378	본정 4-62			黒田清七	信盛堂	화양집의 소매
379	본정 4-62			山口花一	ダルマタクシー	택시
380	본정 4-65	川浪清次	약중소매	川浪清次	合資會社川浪清生堂	약중 소매
381	본정 4-65	吉川ヒラ	제빵	大野一司	カフエ-尙乃月	카페
382	본정 4-68			有馬治	有馬屋吳服店	오복 소매
385	본정 4-69	河浪徳助	라디오 소매	河浪徳助	合名會社河浪商店	전기기구도매
386	본정 4-69			松尾保次郎	博達堂	문방구 도매
387	본정 4-79	植山伸次郎	식조제조	植山伸次郎	三矢酢蘇造所	식조제조
388	본정 4-79			中村力藏	本町四丁目繁榮會	산양단체
389	본정 4-82			秋子ケイ	カウエ-銀座	카페
391	본정 4-89			木下クリ	赤星館	아이스
392	본정 4-101				合資會社日本文化研究所	화양품 소매
393	본정 4-109			佐藤半二郎	佐藤商店	식료점의 소매
394	본정 4-115			松井與七		민감품 문옥
395	본정 4-123	中村金藏	오복 소매	中村金藏	あさひ屋	면 소매
396	본정 4-124			甲斐喜益*	まる樂吳服店	오복 소매
397	본정 4-126	木村眞三郎	약중도매	木村眞三郎	株式會社木村藥房	약중도매
399	본정 4-130	鍛冶伊三郎	정주소매			
400	본정 4-131	合資會社谷岡商店	인쇄		合資會社谷岡商店	인쇄
401	본정 4-131	李喜益*	공동풍상			
402	본정 4-132			小島秀太郎	小島家具店	가구제작
403	본정 4-132			濱崎又吉		부동산중개
405	본정 4-134			兼田佐吉	兼田毛織店	모시 소매
406	본정 4-134			加藤定之*	正木豊洋服店	양복제조
407	본정 4-135			中村力造	中村吳服店	오복 소매
408	본정 4-136	吉川藤四郎	금물 소매	吉川藤四郎	吉川藤四郎商店	금물 소매
409	본정 4-137	吉村捨之助	오복 소매	吉村捨之助		천용의상 소매
410	본정 4-145	廣谷卯太郎	인쇄	廣谷卯太郎	京城荷札製造所	과리피 제조
411	본정 4-145			藤森正	藤森洋服店	양복제조
412	본정 4-148			宮島慶太郎		부동산중개
413	본정 4-149			矢野宮一	矢野洋品店	화양집의 소매
414	본정 4-149			迫田英次		금융업
415	본정 5-12	伊藤彌右衛門	금융업	伊藤彌右衛門*	伊藤質店	금융업
416	상동			伊藤彌右衛門*	京城質屋組合	산양단체
417	본정 5-14				合名會社田中ビルブローカー	금융업
418	본정 5-15			田中勝登		문방구 소매
419	본정 5-18			井手勇		인사주신업
420	본정 5-21			松本久次郎	京城ネオン製作所	간편정부
421	본정 5-28	名越守三	여권	名越守三	松家雄熊	여권
423	본정 5-35	久住ハシ	음식점	久住ハシ	ビツヨン食堂	음식점
424	본정 5-36	矢野政吉	주조	矢野政吉	矢野酒造場	주조
425	본정 5-36	長野嘉一	오복 소매	長野幸太郎	丸十吳服店	오복 소매
426	본정 5-36	諸岡福三郎	여권	花山香一	つだや	염색정부
427	본정 5-36			藤原馬次	未廣屋	염색정부
428	본정 5-36			永永ミチノ	天外堂藥房	약중 소매
429	본정 5-36			片山玉榮	昭和園	일본요리
430	본정 5-36			岩本武治*	阿波文	카페

번호	주소	업소(1931)	업종	업주(1937)	업소명	업종
431	본정 5-36			岩本武治*	本町五丁目繁榮會	산업단체
432	본정 5-36			宮原龜兵衛	サロン日輪	카페
433	본정 5-36			中根清子	横濱おでん	오뎅
435	본정 5-40			種本一	日の丸藥局	약종 소매
436	본정 5-42	福田薫助	양식, 카페	福田薫助	カフェーキング	양식, 카페
437	본정 5-44				合資會社泰成洋行	금융업
438	본정 5-47			山崎源次郎		인사주산업
439	본정 5-48	毛利義人	과자제조		合名會社辰崎屋本店	과자제조
440	본정 5-48	森本森市	금융업	森本森市	森本質商店	금융업
441	본정 5-48	宮崎嘉代	음식점			
442	본정 5-50	林井安之助	토목건축정부			
443	본정 5-50	合資會社難波清造場*	주조			
444	본정 5-50	古谷佐一郎	음식점			
445	본정 5-51				合資會社難波清造場*	주조
446	본정 5-52	愛知産業株式會社京城支店	목탄 도매		愛知産業株式會社京城支店	양식료품 도매
447	본정 5-52			山本金一郎		금융업
448	본정 5-52			山本貞雄	滿蒙旅館	여숙업
449	본정 5-67			村田保		금융업
450	본정 5-80	重兼定太郎	주조			
451	본정 5-82	松本豊治	토목건축정부	松本豊治		토목건축정부
452	본정 5-84			重兼芳藏	重兼酒場	청주 양조

자료 : 京城商工名錄 각년도판, 경성상공회의소월보 각년도판  
\*영업세 면액 15원 이상 납부 업소